

Style 조선일보

MARCH 2018

vol.170



TODS.COM



play it like Hermès



Salvatore Ferragamo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소프트 셀라 백(Soft Cella Bag)이다. 기존 셀라 백보다 소프트한 리너를 사용해 몸에 밀착되는 부드러운 라인으로 여성스러운 실루엣에 잘 어울리며, 토트백 스타일로 포용한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02-3438-6008



28



10

- 14 **PETER ANGERMANN**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 독일 남동부에서 태어난 페터 앙가만(Peter Angermann). 그는 20세기 초 표현주의 회화로 현대미술의 큰 줄기를 형성한 독일의 문화 예술이 전후 분단 체제 아래 겪은 상황에서 재건을 위해 저항과 도전을 감행한 예술가들을 보고 지났고, 스스로 이에 동참했다. 가난한 변화의 물결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공고히 한 앙가만을 만났다.
- 16 **ACTIVE POSITIVE** 남성의 손목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기능이 뛰어난 매력적인 스포츠 워치 컬렉션.
- 18 **ENCHANTING MOTION** 광범한 주얼리를 넘어 나만의 테이스트를 표현하는 특별한 심벌이 되어주는 하이엔드 브레이슬릿.
- 20 **2018 S/S RUNWAY REPORT** 소녀적인 낭만과 폐미난한 감성, 스포티 무드가 아우러진 2018 S/S 컬렉션의 패션 판타지. 당신의 봄 옷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만큼 가치 패션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한다.
- 22 **A JOURNEY TO TRIVERO** <스타일 조선일보>는 남성복의 역사, 그리고 에르메네제갈도 제1위 정신이 담겨 있는 고장 트라베로를 찾았다. 전통 수공 기술을 총망라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원재료, 패턴, 그리고 의류 등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퀄리티와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해온 비결과 오아시 제1위 스토리까지, 트라베로라는 이름다운 고장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한다.
- 24 **2018 SIHH** <스타일 조선일보>가 올해도 최고급 시계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브랜드의 새로운 시계를 직접 취재했다.
- 28 **GET A MOVE** 청량한 컬러, 소프트하고 크리스피한 소재, 기대 이상으로 가볍고 경쾌하다. 빅 하우스들의 새로운 남성복 컬렉션.
- 36 **2018 BRIGHTER SKIN** 이제 화이트닝은 더 이상 피부를 깨끗하고 하얗게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인 화이트닝 케어를 원한다면 미리 읽고 넘어가야 할 2018년 화이트닝 트렌드와 제품 리스트.
- 38 **HAPPY TOGETHER**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취향을 드러내는 향수를 서로에게 선물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좋은 취향을 지닌, 아름다운 커플을 위한 향수 선택서.
- 39 **BEAUTIFUL TECHNOLOGY** 전 세계 1천만 명의 소비자가 효과를 입증한, 현존하는 뷰티 다바이스 중 가장 진보한 기술을 담은 뷰티 다바이스 전문 브랜드 실콘(Silk'n).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뷰티 다바이스, 실콘을 눈여겨볼 것.
- 40 **ALWAYS BEST** 고집스러운 연구와 리뉴얼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는,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코즈메틱 열선. 오랜 시간 동안 사랑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 41 **BLOOMING SPRING**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얼굴에 생기 있고 화사한 꽃잎 컬러를 물들일 2018 스프링 메이크업 컬렉션.
- 42 **EDITOR'S PICK**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추천하는 코즈메틱 제품.

Style 조선일보

Issue.170 March 2018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영체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정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라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OVERSEAS

AN INVITATION TO TRAVEL



VACHERON CONSTANTIN
GENÈVE, DEPUIS 1755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Seoul
Avenuel 02 2118 6116 · Avenuel Worldtower 02 3213 2242 · Hyundai 02 3449 5930 · Galleria 02 3446 0088



**Jewel
BE NATURE**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은 동식물 모티브 주얼리.

(왼쪽부터) 옐로 사파이어, 핑크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꽃잎을 표현한 패플 펜던트 순백402원대, 등나무 모티브로 나뉜을 그릇과 입체적인 실루엣을 표현한 위스타리아 링 2천원대, 모두 타사키, 유니콘 산악정 모티브의 쿼츠 드 가르스 4천원대, 다이아몬드 꽃 모티브를 표현한 비올라 이아리온과 네크리스 각 1천원대, 타파니, 옐로 골드 블랙 레카로 동물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팬더 각 가르스 3천원대, 에디터 배이진



**Fashion
BELTED BAGS**

일명 '관망지 패션'으로 불리던 하프 색이 벨트 백이라는 이름으로 스타일리하게 귀환했다. 그것도 런웨이에서! 크로스로 메기도 하고 손으로 가볍게 쥐는 등 스타일링 방법 또한 스타일리해졌으니, 하프 색의 변신에 주목하라.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로고와 GG 패턴, 삼색 밴드 디테일을 담은 벨트 백, 28X18cm, 1백80만원 구찌, 모노그램 로고 패턴으로 레트로한 느낌을 한층 살린 벨트 백, 38X19cm, 1백80만원 루이 비통, 카툰나이트와 합성해 완성한 감각적인 카툰 패턴이 돋보이는 나옴 스타일의 벨트 백, 25X18cm, 1백12만원 프라다, 세련된 배색과 시그니처 가죽 디테일이 멋스러운 앙가주 스타일의 패니백, 28X15.5cm, 1백83만원 미우미우, 우트 워는 카툰과 그래픽 패턴으로 완성한 벨트 백, 13X13cm, 53만원 오스카 노, 에디터 권유진



**Hot Spot
SLEEP MASTER**

숙면을 취하는 것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가? 잠자는 시간이 인생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질적으로 풍족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데 필요한 양질의 수면을 취하려는 것이 바로 침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트리스를 고를 때 더욱 간헐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한다. 여기,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카차프레이즈로 하이엔드 매트리스의 시대를 연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SIMMONS)'를 주목해보자. 지난 1월, 시몬스 갤러리 논현점이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끝내고, 마침내 시몬스 침대 브랜드 스토리와 숙면 기술력을 다한 새로운 체형 공감을 선보였다. 시몬스 갤러리는 시몬스 침대가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 콘셉트를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쇼룸이라 할 수 있다. 매트리스 랩(Mattress Lab)으로 구성된 지하 1층에서는 시몬스 침대의 독보적인 매트리스 설계 노하우를 직접 느낄 수 있으며, 시몬스만의 특화된 사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슬립 마스터의 상세한 1:1 수면 컨설팅도 받아볼 수 있다. 또 시몬스의 하이엔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 블랙이 비치민 1층에는 브랜드 히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인 헤리티지 앨리(Heritage Alley)를 다뤘다. 약 1백 년 전 매트리스 및 침대 프레임 제작에 사용되던 고(古) 기계들과 1940~60년대 시몬스의 포켓프링과 매가진 광고 등 시몬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소장품을 전시해, 마치 박물관을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안겨준다. 시몬스 갤러리 논현점에서는 블랙 리벨로도 불리는 최상위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 혼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와 감각적인 침대 프레임,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사나의 베딩과 패치 등이 어우러진 시몬스만의 감각적인 토탈 침실 룩도 경험할 수 있다. 이젠도 당신을 위한 최적의 매트리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곳에서 직접 손을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며,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줄 천상의 편안함을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문의 1899-8182 에디터 이지연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Focus
캡슐 커피의 차원이 다른 진화, 네스프레소 버쥬오**

요즘 커피 애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변화의 화두가 있다. 커피 추출 방식 자체를 바꾼 데다 비극도 테크놀로지까지 접목해 보다 완성도 있는 맛의 미학을 추구한 프리미엄 캡슐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Nespresso) 이야기다. 이 브랜드에서 최근 한국 시장에 새로 선보인 버쥬오(Vertuo) 라인업은 눈에 띄게 참신한 면면을 내세워 네스프레소 매장 방문 시를 코너에 줄을 길게 늘어지게 만들고 있다. 변화의 핵심에는 수년에 걸쳐 연구했다는 센트리퓨전(Centrifusion)이라는 기술이 있다. 기존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에스프레소 고압 추출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 기술로 인해 최대 7000RPM의 초고속 회전 추출이 가능해진 덕분에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수준의 풍성한 크레마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같은 보디감을 더해준다. 버쥬오의 또 다른 강점은 '원터치'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피 스타일, 추출 시간, 온도 등을 일어서 최적으로 조절해주는 바코드 기술이다.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진화가 아닐까 싶다. 커피 스타일도 크게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기존 '오리지널 라인업'으로는 리스프레토(25ml), 에스프레소(40ml), 롱고(110ml)로 추출된 커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버쥬오 마신의 경우에는 에스프레소(40ml)에서 더블 에스프레소(80ml), 그랑 롱고(150ml), 머그(230ml), 알토(414ml)까지 추위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버쥬오 전용 캡슐은 23가지가 나와 있다. 오는 3월 31일까지(4월 말까지 사용) 버쥬오 마신을 구매하면 5만 원 상당의 클럽 크레딧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www.nespresso.com/kr, 문의 080-734-1111(네스프레소 클럽)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도자 예술의 지평을 넓힌 이한정 작가의 전시, <세 개의 방>**

네라로하는 국내외 아트 컬렉터들이 찾는 도자 공예 작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한정 작가의 전시 <세 개의 방(The Rooms with Three Stories)>이 울퉁퉁 흙의 영감으로 수놓는다.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자리한 소피스 갤러리에서 오는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이한정 작가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자연스러운 재료인 흙에 관한 사유에 초점을 맞춘다. 흙을 기본으로 공예, 건축, 회화 등 이루는 작가의 종합 예술적 사유를 보여주기 위해 신작 20여 점을 포함해 '세 개의 방'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구성이 흥미롭다. 첫째로는, 성인 4~5명이 들어갈 수 있는 흙으로 빚은 방이 펼쳐지는데, 대형 도자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이 방 안에는 의자와 조명, 청문도 있어서 관람객에게는 사색의 공간이 된다. 둘째는 두 가지 사상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전시장에는 보이는 대성(대인형), 드로잉과 관찰하는 주제(관람객 또는 이한정의 인물, 동물)가 함께 있는데, 누가 관찰 주체이고 누가 대상인지 모르게 배치돼 있기에 서로의 관계가 전복되고 동등해진다. 마치 빚는 사유와 전사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실제 사무 공간인 갤러리 오피스에 놓인 도자 가구와 조형물은 실용적으로 기능하는 가구와 서로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며 긴장감을 형성하도록 돼 있다. 오피스의 의지와 태도를 대치할 작가의 Wall Chair와 Table은 전시 내내 실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갤러리 관계자는 이렇듯 흙을 통해 발견하는 세 개의 공간이 이렇게 상충작용을 피하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살펴보는 데 관람의 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02-555-7706 에디터 고성연



www.brunellocucinelli.com

BRUNELLO CUCINEL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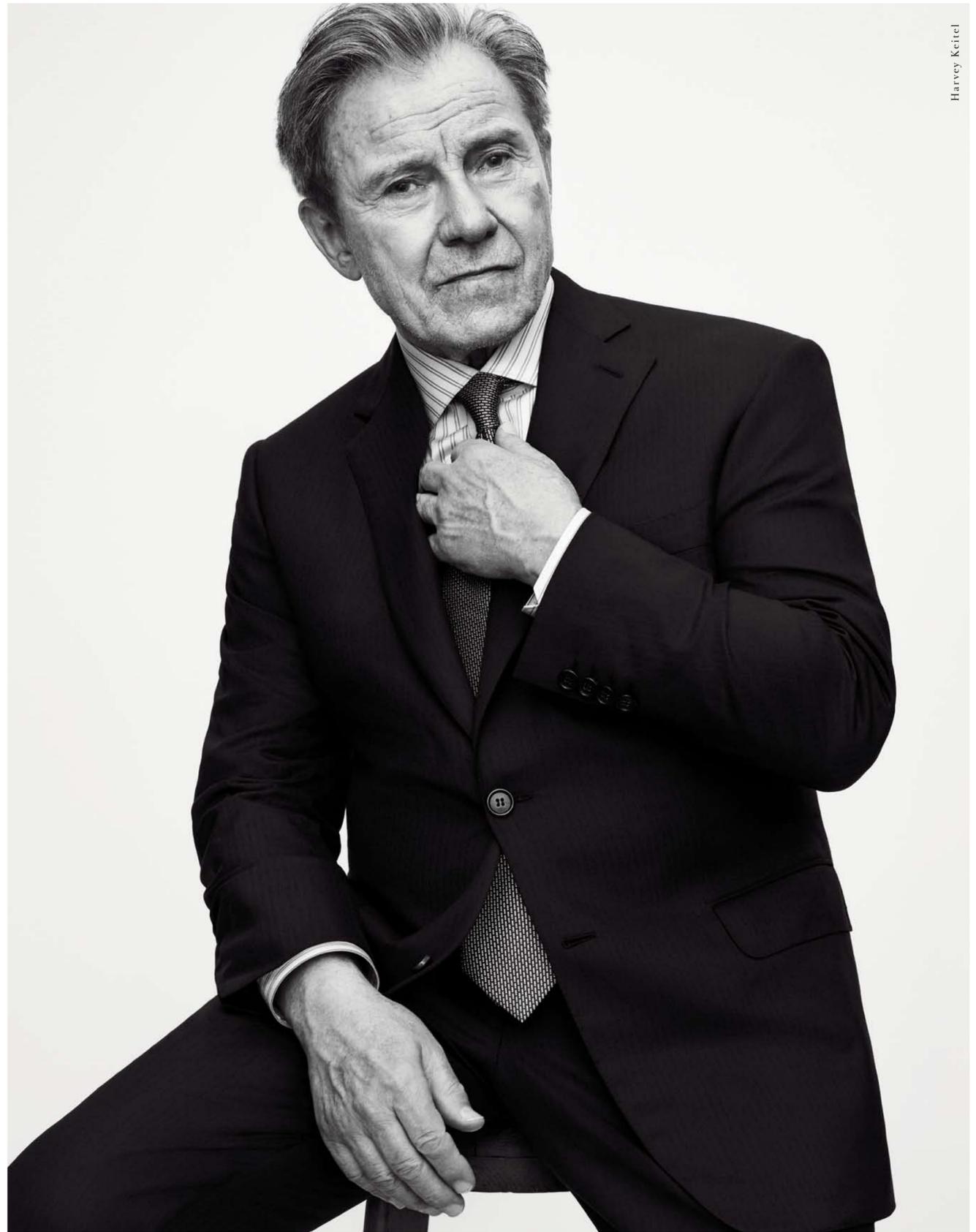
브루넬로 쿠치넬리 청담 전문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신세계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판교점, 대구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EAST /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 AK플라자 분당점



for him
Selection

유니크하면서도 펀(fun)한 모티브가 즐거움을 안겨주는, 디자이너의 재기 발랄한 사고방식으로 탄생한 2018 스포링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 구찌 1577-1921
- 루이 비통 02-3432-1854
- 몽블랑 1670-4810
- 무이 02-3446-8074
- 샬비트레 패라기모 02-3430-7854
- 틀체한라비나 02-3444-0077
- 분다삼 02-3444-3300
- 톨 포드 02-6905-3534
- 에르메스 02-542-6622
- 토즈 02-3438-6008
- 프라다 02-3218-5331
- 에르메스립도 제나 02-518-0285
- 안아일랜드이치 02-6905-3336
- 몽블랑 1677-4810



Harvey Keitel

TAILORING LEGENDS SINCE 1945

Grand Hyatt Seoul B1, The Shilla Seoul B1
Galleria Luxury Hall East 4F, Shinsegae Main 6F
Shinsegae Centum City 5F, Hyundai Main 4F
Avenuel World Tower 4F

Brioni
ROMA



for her
Selection

소재와 패턴의 한계를 뛰어넘어 백과 슈즈, 벨트 등 다양한 액세서리와 믹스 매치를 통해 재미를 더한 스프링 아이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라미보 컬렉션의 스텝들과 비즈 장식으로 완성한, 안벨리스 일단기 문보이는 원피스 2백만원대 디젤.

올해 SHH에서 첫선을 보인 칼라벨한 아소 카사키 위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독창적인 소재 표현이 돋보이는 토트백, 34x42cm, 1백29만원대 안아일랜드마치.

요술 펌프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호라별 모양의 브로치 가격 미정 샤넬.

카카온 바깥쪽 혹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뒷쪽에 매겨어진 잘 어울리는 카링 49만원대 로아베.

키튼의 한 장면을 그대로 담은 아이폰 전용 핸드폰 케이스 9만원대 모스키노.

디젤 02-6979-0616
룩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안아일랜드마치 02-6905-3336
펜디 02-2056-9023
프라다 02-3218-5331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 비통 02-3432-1854
지미수 02-3438-6107
토조 02-3438-6008
칼 라가펠트 02-3443-2016
샤넬 02-543-8700
로아베 02-6905-3470
디올 02-3480-0104
모스키노 02-6905-3892
미우미우 02-3218-5331
에르메스 02-542-6622

스피드 장갑과 캐리진, 컬러 블록이 아우라를 스포팅한 문양이 새겨진 벨트 49만원대 미우미우.

라미보 컬렉션의 안벨리스 일단기 49만원대 로아베.

다크 그레이 컬러의 벨트 89만원대 에르메스.

샤넬의 에르메스 벨트 89만원대 에르메스.

제프 쿤스의 향연에 영감을 줬다. 무드의 디오리온, 핑클레인 배낭백, 45x28.5cm, 39만원대 루이 비통.

고양이 얼굴을 형상화한 네로난 미니 클라치, 16.3x10.6cm, 29만원대 칼 라가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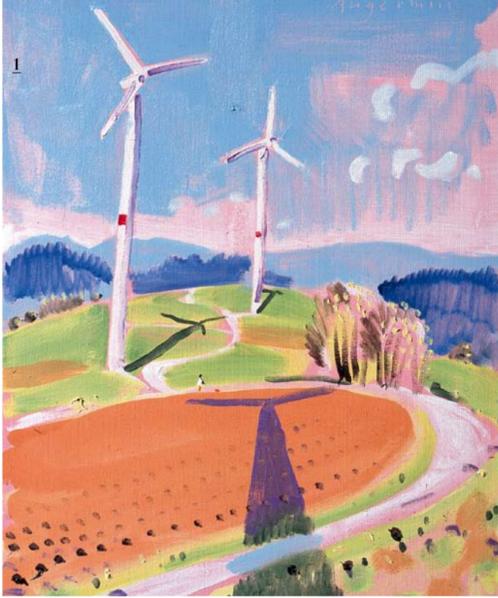
라미보 컬렉션의 안벨리스 일단기 49만원대 로아베.

©2017 ISSEY MIYAKE INC.

ISSEY MIYAKE

issey Miyak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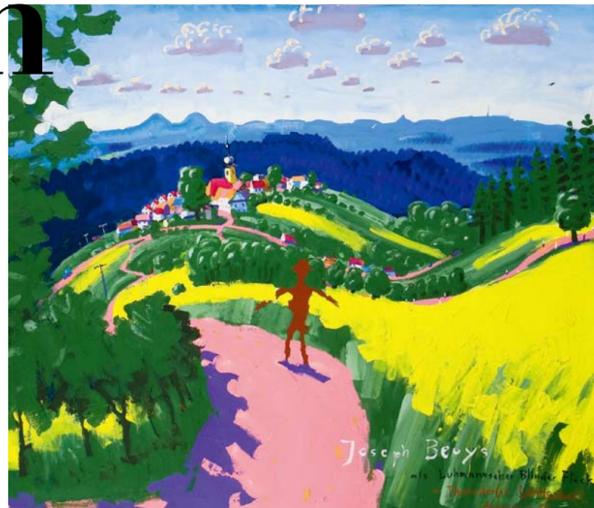




날카로운 시각, 동심의 빛을 담은 회화

Peter Angermann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년, 독일 남동부에서 태어난 페터 앙거만(Peter Angermann), 그는 20세기 초 표현주의 회화로 현대미술의 큰 줄기를 형성한 독일의 문화 예술이 전후 분단 체제 아래 겪은 상황에서 '재건을 위해 저항과 도전을 감행한 예술가들을 보고 자랐고, 스스로도 이에 동참했다. 1960~70년대에는 전위적 예술가 요제프 보이스를 중심으로 주요 세력이 뭉쳤고, 1980년대 초에는 추상 세계에 억눌린 감정을 끄집어내고자 '재현'의 복귀를 시도한 구상회화가 떠올랐는데, 이른바 신(新)표현주의다. 그 기나긴 변화의 물결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공고히 한 앙거만을 만나봤다.



영음을 달리던 강렬한 파란빛 산, 작은 설렘이 묻어나는 낭만적인 연주홍빛 들판, 보라색과 핑크색이 발랄하게 어우러진 시골길, 회색의 미를 최대로 뽑아낸 듯한 안개 낀 마을 풍경... 페터 앙거만(Peter Angermann)의 풍경화를 응시하다 보면 파버카스텔 색연필이 떠오른다. 고운 톤 케이스에 가득 담긴 유채 색연필의 다채로운 색상을 마치 '순간의 체형'에 빠져든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자신만의 감성으로 캔버스에 맘껏 풀어낸 느낌이랄까. 그렇듯 친진하고 자유로운 동심이 흐르면서도 어딘가 품격 있는 절도가 느껴진다. 시끄럽고 복잡한 속세를 떠나 살면서 수십 년을 한결같이 한 고장의 풍경을 담은 노장만이 가질 수 있는 내공의 소산이 아닐까 싶다. 23년 전인 1995년, 화단에서 맹렬히 활약하던 그가 전원생활을 택하면서 자리 잡은 등지는 독일 남동부 투른도르프(Thurndorf)의 한 마을. 흥미롭게도 2백50년이 넘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파버카스텔의 본사가 있는 독일 뉘른베르크(Nürnberg)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뜻풀이를 하자면 '백리향 마을'이다. 녹음(綠繡)의 축복을 만끽하느라 지루할 세도 없이 시골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페터 앙거만의 작업자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프랑코니언 지방의 색채라는 따뜻한 노란색 벽과 짙은 벽돌빛 지붕, 그리고 마당에는 소담스러운 정원과 작은 연못까지. 그야말로 풍경을 그리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동심을 절로 자아내는 전원생활 속 무르익은 노장의 혼

바람이 제법 쌀쌀한데도 연녹색 반팔 티셔츠와 카고 반바지 차림으로 '손님을 맞은 페터 앙거만. 여기저기 집 구경을 시켜주던 그는 아담한 연못을 가리키며 "까까이서 보면 연못에 수련도 있어요. 모래의 정원처럼 말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원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해가 들면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뽑아내는데, 함께 사는 손녀를 비

롯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앙거만 역시 레하우(Rehau)라는 바이에른 주의 작은 마을 출신이라 소박한 전원생활이 익숙하면서도 계절에 따라, 빛에 따라, 바람에 따라 실 새 없이 변하는 대자연의 정취와 풍경이 끝없는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 되는 듯싶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몹시도 좋아하기는 했지만, 직업적인 작가를 꿈꾸지는 못했다고 한다. 단지 자신이 그림 그리기와 자연과학, 두 가지에만 큰 흥미를 느낀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마침 이들의 진화에 대해 걱정하던 부모님이 미술 애호가인 지인에게 상담을 청하면서 예술 세계에 눈을 떴다. 인상파, 표현주의 같은 미술 사조에 관련된 서적을 풍부하게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아트 스쿨에 들어갔지만, 사실 '성공한 화가가 되고야 말겠다는 야심을 불사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물론 피카소처럼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삶을 동경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감히 바라지 않았고, 외려 고독한 삶을 살았던 반 고흐 같은 예술가의 운명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커다란 이젤들이 놓인 1층 작업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수려하게 펼쳐진 마을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노라니 큰 욕심 없이 '작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노장 예술가의 마음가짐과 순수한 열정이 웬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간의 반전 스토리가 있다. 독일 현대미술계는 물론 20세기 세계 문화 예술계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킨 인물이자 이른바 '사회적 미술'을 주도한 영웅으로 손꼽히는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의 제자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요제프 보이스는 백남준과 함께 기존 가치의 해체를 추구하고 삶과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위예술 운동인 '플럭서스(Fluxus)' 그룹을 이끈 핵심 인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경쾌한 동심과 진지한 애수를 동시에 품은 앙거만의 아름다운 풍경화와 '혁명가나 구원자의 이미지를 지닌 보이스의 난해한 퍼포먼스와 설치 작품이라니... 언뜻 보기에는 도무지 연결 고리가 없을 듯한 사제(師弟) 간 아닌가?

요제프 보이스에게 반하다, 그리고 나의 길을 가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앙거만은 학창 시절 요제프 보이스의 추종자였다. 그는 뉘른베르크에서 수학하던 시절 독일 표현주의와 팝아트 등에 심취하기는 했지만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부르짖으면서 압박과 권위에 반대하던 보이스를 지지하게 됐고, 그 소용돌이의 핵심에 있던 뒤셀도르프(Düsseldorf)로 학교를 옮기기까지 했다. '68혁명'이라고 불리는 학생운동이 일종의 촉발제로 작용했다.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대학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회변혁 운동은 유럽 각지로 급속히 번졌는데,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뒤셀도르프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보이스는 이미 급진적인 성향으로 유명했고, 펠트와 기름 덩어리를 모터보로 한 전위적인 조형 작품을 발표하고 피아노를 부수는 해프닝을 벌이는 등, 당시로는(요즘 기준으로) 몹시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다. 전후 독일인들이 겪어야 했던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갈등 속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앙거만 같은 '젊은 피로서는 당연했다. "(보이스)의 카리스마는 정말이지 대단했어요. 그런 강력한 존재감에 반했고, 그를 찾아가 나를 제자로 받아들라고 했지요." 앙거만은 회상했다. 그렇게 보이스의 제자가 됐고, 지방, 펠트, 천, 밀랍 등 비정통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플럭서스식' 작품을 했다. 그는 스승의 충애를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영예를 쌓아나간다는 희망찬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모든 사람은 예술가"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보이스는 개념미술, 행위예술, 환경예술, 독일 신표현주의에 이르기까지 두루 영향을 미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앙거만 역시 그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스스로는 명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음에도 대중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법을 잘 알았던 스승의 주관적인 기호에 맞춰 작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마음을 지닌 동창생들과 함께 'YIUP'이라는 그룹을 결성했다. 이들은 스승의 방식을 '편협하다'고 비판하는 작업을 펼쳤기에, 반기 아닌 반기를 든 셈이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스승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앙거만은 '회화'로 자신의 노선을 확고히 정했다. 회화의 정신성에 대해 모색하던 그는 1970년대 말에는 밀란 쿤(Milan Kunc), 얀 크납(Jan Knap)과 함께 또 다른 그룹인 '노말(Normal)'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상과 맞닿은 소재를 활용하되 재치 있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질서적인 충동을 버린' 자신들만의 조형 언어를 만들어내고자 함께 고민했고, 공동 작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인 이슈를 날카롭고 해학적으로 버무리지만 대담하고 열정적인 색깔과 터치 덕분인

위쪽 밑줄: 사진 제공: 보데 갤러리(www.bode-galerie.de/)



1 자연을 다루는 대담하고 아름다운 색감이 돋보이는 'Windmill Shadows' (2009). 2 Two Skiers in Bear Outlets(1998). 독일 신표현주의 화가 페터 앙거만의 예술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재인 테디 베어가 등장한다. 3 앙거만이 뒤셀도르프 미술대학 재직 시절 결성한 예술가 그룹 YIUP을 위해 그린 포스터 YIUP in Aachen(1970). 4 사회적 미술을 부르짖었던 앙거만의 스승 요제프 보이스가 등장하는 풍경화 'Landscape with Blind Spot'(1999). 5 독일 바이에른 주 투른도르프의 한 마을에 위치한 앙거만의 작업자 스튜디오 내부. 이젤 위에 마을 건물을 흥미롭게 두른 'Curve 시리즈'가 있다. 6, 8 앙거만의 작업실 1층 이젤과 내부. 프랑코니언 지방의 색채라는 따뜻한 노란색 벽이 따뜻한 느낌을 준다. 7 앙거만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풍자적 작품도 선보이려만, 전원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야외에서 자연을 그리느라 외광파 방식의 작업을 즐겨 한다.



(중앙 맨 위부터 시계 방향) 오메가 플래닛 오션 600M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GMT 모델, 그리고 잠수용 시계를 결합한 획기적인 액티브 타임피스다. 오메가 최초의 독창적인 오렌지 러버와 세라믹 혼용 단방향 배럴을 장착하고, 동일한 오렌지 컬러 스티치 디테일의 블랙 러버 스트랩을 매치해 스포티브한 느낌을 물씬 풍긴다. 1천원엔대, **블랑팡 피프티매일즈 엑스-퍼펙트** 블랑팡의 위치를 이기지 못할 때 배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다이빙 컬렉션. 전설적인 다이빙 워치 피프티매일즈에 엑스(X)를 붙인 이유는 수역에서 번수를 뜻하는 X, 즉 다강한 가변 수심 측정기 기능이고,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따온 스텔링 X의 의미로, 기존 다이빙 워치의 한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콘셉트의 타임피스다. 4천7백원엔대, **브라게 미린 크로노그래프 5827BB** 스포티한 디자인을 뽐내면서도 브랜드의 DNA라 할 수 있는 우아한 기품을 놓치지 않았다. 핸드 기어세 페넬을 새긴 살버드 골드 다이얼에 세련된 블루 인덱스와 핸즈를 장착하고, 둘과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슈퍼 루미노바를 적용한 철판까지, 미려적인 세심함이 돋보인다. 4천원엔대, **불가리 옥토 울트라세로 슬로텔로** 남성이 넘치는 옥토 디자인의 41mm 사이즈 케이스를 올 블랙 핸즈와 아워 마일로 마감하고, 블랙 러버 스트랩으로 완성했다. 강렬하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을 자랑한다. 8백원엔대, **오디마피게 로열 오크 오프쇼어 다이빙** 화이트와 실버, 블루의 조화가 보기만 해도 드넓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듯한 위용을 풍긴다. 강철에 보이는 필라형으로 이뤄진 오디마피게는 브랜드의 특별한 기술로 8개의 스크린으로 고정해 외부 충격에도 분해되지 않는 강점을 지녔으며, AP 셀프워딩 칼리버 3120을 탑재한 전문적인 다이빙 워치로 수심 300m까지 방수 가능하다. 2천4백원엔대, **에거 르롤트르 미스터 컴포저** 크로노그래프 기법과 스크라에 강한, 매트 블랙 컬러 세라믹 소재 케이스에 골드로 포인트를 준 외관으로 스포티한 매력을 발산한다. 크로노그래프와 세컨드 타임 존 기능을 갖추었으며, 오토매틱 와인딩 칼리버 757으로 구동한다. 2천원엔대, **파라데이 루미노어 십자저울 1950 아미고네트 3 데이즈** 오디마피게 타이타늄 0 밀리미터 얇은 해군에 다이얼과 해저 관련 장치를 넣을만 유구한 역사를 지닌 파라데이에서 제작한 최초의 항자성 시계다. 47mm라는 압도적인 케이스 사이즈가 돋보이며, 인하우스에서 제작한 P.9010 칼리버를 탑재했다. 300m 방수 기능과 7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1천2백원엔대, **에디터 아저먼**

오메가 02-511-5797 블랑팡 02-6905-3367 브라게 02-3438-6218 불가리 02-2056-0171 에거 르롤트르 02 6905 3998 파라데이 02-3467-8455 오디마피게 02-3449-5917

Active positive

남성의 손목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기능이 뛰어난 매력적인 스포츠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issey Miyake.com

ISSEY MIYAKE

Mercedes-Benz Select.

The new fragrance for men.



Mercedes-Benz



INCC - Licensee of Daimler AG. 수일문매점 : 서울메트로(신대문역) | www.cso.kr | 문의 : 080-363-3454

(왼쪽 윗부터 순서대로) 티파니 빅토리아 앨타이어링 브레이슬릿 클래식 중의 클래식, 꽃잎에서 영감을 받아 마구즈 컷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의 반쪽으로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브레이슬릿, 가느다란 손목을 따라 유연하게 흘러내리는 플라워컷 소재의 드래프트가 아름다운 제품이다. 6천만원 대. 문의 02-547-9488

불가리 세르펜티 브레이슬릿 머더오브펠의 영롱함과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가 드리프트한 실루엣을 만들어낸 예술 작품. 뱀을 모티브로 끊임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불가리를 대표하는 디자인 중 하나다. 소장 가치 높은 컬렉션. 8천만원대. 문의 02-2056-0170

반클리프 아펠 부통도르(Bouton d'Or) 브레이슬릿 붉은 커널라안과 머더오브펠 소재를 작은 동상원 모티브로 해, 박 손으로 세공해 아름다움을 완성해낸 하이 주얼리 컬렉션. 오랜 전통을 지닌 주얼리 하우스에서만 선보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여성기와 우아함, 예술적인 가치까지 담고 있다. 6천만원대. 문의 00798-852-16123

까르띠에 랜더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15.7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야생적 관능미를 표현한 랜더드 브레이슬릿, 까르띠에의 영원한 뮤즈인 팬디는 계속 재해석되기 위해 하이 주얼리의 가치를 완벽하게 담고 있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까르띠에 자스트 앵 글루 더블 브레이슬릿 미치 상상을 뿌린 듯 휘둘러 반짝이는 유니크한 형태에 다이아몬드의 정교한 매력을 품고 있는 브레이슬릿. 꽃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한 디자인을 화이트 골드와 총 3.6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손목에 두 번 감을 수 있게 재해석했다.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브레이슬릿 브레이슬릿의 가장자리를 따라 균일하게 세공한 작은 원형 비즈 사이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플라워 모티브로 자리한다. 극도로 페이난한 디자인으로 연꽃과 스타일에 관계없이 오래도록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3천만원대.

불가리 세르펜티 아이즈 온 미 브레이슬릿 에케랄드로 뱀의 눈을 표현해 강렬하게 느껴지는 뱀, 뱀의 비늘을 육각형의 기하학적 패턴으로 형상화해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자아낸다. 워터나 얇은 브레이슬릿 여러 개와 함께 레이어링해도 멋지게 연출할 수 있다. 8천만원대.

까르띠에 까르띠에 파우나 앤 플로라 브레이슬릿 미치 리본을 묶은 듯, 손목 위에 다이아몬드를 꽃피운 듯 고전적인 디자인의 브레이슬릿. 오직 플래티넘과 11.60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만 사용해 심플하게 완성했다. 빈티지 디자인이라 해도 믿을 만큼 클래식하다. 가격 미정. 에디터 배미진

enchanting Motion

평범한 주얼리를 넘어 나만의 테이스트를 표현하는 특별한 심벌이 되어주는 하이엔드 브레이슬릿.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2018 S/S Runway Report

소녀적인 낭만과 페미닌한 감성, 스포티 무드가 어우러진 2018 S/S 컬렉션의 패션 판타지. 당신의 봄 옷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일곱 가지 패션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한다.

trend 1 Denim Couture

누구나 옷장에 데님 한 벌쯤은 가지고 있다. 데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소재로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데님은 캐주얼한 달리한 채 매년, 그리고 매 시즌 컬렉션에 등장했다. 한동안 식을 줄 모르던 유스(youth) 컬처의 영향으로 캐주얼한 느낌의 데님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엔 지나치게 웨어러블한 모습을 살짝 덜어낸 채, 좀 더 창의적이고 쿨투리스틱 터치를 가미한 룩으로 선보인다. 다음은 톤이 다른 데님 조각을 재단한, 패치워크 디테일의 데님 수트를 소개했으며, 톰 포드는 남성 재킷에서 영감을 받은, 과장된 어깨 패드로 포인트를 준 데님 수트 룩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막스마라 특유의 기교 넘치는 스타일로 데님 원피스를 디자인하여 전반적으로 데님 아이템 하나로 전체를 스타일링한 룩이 눈길을 끌었다.

trend 2 New Evening

슬립 드레스 열풍에 이어, 하이패션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이브닝 웨어의 새로운 변주가 시작했다. 특별한 자리, 특별한 여인만을 위한 디자이너의 예술성을 강조한 이브닝 드레스가 일상적인 패션으로 스며든 것. 특유의 뒀한 길이감을 유지한 채, 당장이라도 휴가지로 떠나도 될 법한 모습으로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표현한 스포티함과 드레스함의 조화로 선보인다. 비치 웨어로도 손색없을 만큼 포플린과 도비 실크, 리넨 혼방 니트, 스카프 실크 등 휴리데이 비치 룩에서 자주 사용하던 가볍고 편안한 소재로 전개되니, 다가오는 서머 바캉스를 위한 쇼핑 리스트에 과감히 추가해볼 것!

trend 3 Graphic Gallery

지난 9월, 프라다의 2018 S/S 컬렉션을 보기 위해 쇼장에 들어선 순간, 런웨이 무대라기보다는 마치 팝아트 갤러리처럼 꾸민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예술 애호가라도 잘 알려진 프라다의 미우치아 프라다는 '프라다 코믹스(Prada Comics)'라는 주제로 최초의 여성 슈퍼 히로인을 창조한 타르케 밀을 비롯한 카투니스트 8명의 작품으로 런웨이를 채운 것. 패션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이토록 직접적으로 예술을 패션에 입힌 적이 있었는가? 캄빈클라인의 새로운 수장, 라프 시몬스와 미소니, 베르사체는 앤디 워홀의 작품을 런웨이 룩에 그대로 담아냈다. 또 매종 마르지엘라와 발렌시아가, 쉐린느, 발렌시아가의 컬렉션 룩에서는 신문 같은 인쇄물의 거친 느낌을 살린, 아날로그적인 포토 프린트가 돋보였다. 기존 디자이너들이 특정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회화적으로 풀어냈다면, 이번엔 룩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인 표현력이 이번 시즌 아트 프린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전 포인트다.

trend 4 Bright Idea

살랑이는 봄바람을 타고 찾아오는 파스텔컬러는 올해에도 활약할 예정이다. 다만 소프트 핑크와 블루를 중심으로 한 파스텔 군단에서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울트라 바이올렛 컬러의 영향을 받은 라벤더 컬러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카멜색의 제왕 막스마라마저도 이번 시즌



런웨이에서 보랏빛 행렬을 선보였으며, 마이클코어스, 발렌티노, 톰 포드, 니나리치 등 수많은 패션 하우스도 신비로운 라벤더의 매력에 흠뻑 매료되었으니. 이제까지 여성스러운 실루엣에 파스텔컬러의 터치를 더했다면, 이번엔 사랑스러운 느낌보다는 절제된 테일러링으로 사프한 룩에 대입하길 제안한다. 포근한 블루 컬러를 입힌, 특유의 미니멀리즘이 돋보이는 각 잡힌 테일러링 코트를 선보인 질 샌더를 참고할 것. 파스텔 컬러를 가장 잘하게 연출하는 팀은 바로 팝한 컬러와의 믹스 매치! 마르니와 MSGM에서는 파스텔 핑크 룩에 강렬한 레드 컬러 액세서리를 매치한 스타일링을 통해 마냥 사랑스럽기만 한 파스텔컬러의 도발적인 반전 매력을 엿볼 수 있었다.

trend 5 Pencil-case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는 본인이 자주 즐겨 입는 펜슬 스커트를 두고 '여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무기가 말했다. 허리부터 무릎 아래까지 일정한 폭이 유지되는 디자인으로, 연필처럼 길고 가는 다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펜슬 스커트는 특유의 기품 있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퍼스트 레이디 룩이라는 로열 프리미엄까지 가미되었다. 사실 펜슬 스커트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1960년대를 풍미한 할리우드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 메릴린 먼로, 에바 가드너의 키 아이템이었다. 미니스커트처럼 다리를 전부 보여주지 않지만, 엉덩이와 허벅지가 지밀착되는 디자인으로 여성의 관능미와 지성미를 동시에 뽐낼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크리스찬 디올을 포함한 수많은 패션 하우스 디자이너들이 사랑한 펜슬 실루엣은 매년 런웨이 무대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만, 재킷과 펜슬 스커트로 구성된 특유의 단정하고 포멀한 느낌으로 상류층 여성들 또는 오피스 레이디의 전유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로운 스타일로 전개된다. 기존 H라인부터 커팅 디테일, 램프스커트 스타일까지, 펜디와 막스마라, 로즈, 프라다 등 빅 패션 하우스에서 선보인 룩을 살펴보면 다양한 스타일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오버사이즈 톱과 함께 매치하고 5cm 미만의 키튼 힐을 신거나, 캐주얼한 스웨트셔츠와 스니커즈를 더해도 좋다. 올봄 오피스 룩부터 캐주얼 스타일링까지 확장된 펜슬 스커트로 여성의 실루엣과 자신감을 표출해보자.

trend 6 Sporty Spice

런웨이와 스트리트의 장벽이 완벽히 허물어지면서, 더 이상 '스포티즘'을 빼놓곤 시즌 트렌드를 논하기 어려워졌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소 어색했던 애슬레지 키워드는 이제는 하이패션 전반에 걸쳐 자리 잡았다. 모든 컬렉션 룩을 스니커즈와 매치한 루이 비통 쇼와 구찌, 발렌티노에서 보여준 볼드 스트라이프 패턴과 프라이머리 컬러를 믹스한 강렬한 스포티즘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이번 시즌엔 단순히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애슬레지 룩을 넘어, 일상복, 즉 오피스 웨어에도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링까지 확장된다. 끝에는 퍼 블루종과 트렉 팬츠를 매치해, 하이엔드 패션에 뿌리를 두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하면서도 쿨한 에티튜드를 보여주었다. 지지 하디드와 벨라 하디드, 켈달 제너와 같은 핫한 셀러브리티들의 스트리트 룩만 보더라도 활라와 푸마 등 스포팅 하이로즈 브랜드의 스웨트셔츠를 하이패션 브랜드의 펜슬 스커트와 연출하고 사이하이 부츠를 신는 등 특유의 활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슬리칸관능미나 구조적인 커팅을 첨가해 시크하고 긴장감 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단순한 스포츠 웨어에서 벗어난 하이패션 발상으로 진화된 스포티즘을 당신의 일상에서도 자유롭게 누리보길.

trend 7 Feather Weather

레트로 열풍을 일으키며 한동안 미니멀리즘에 빠져 있던 패션계를 다시 맥시멀리즘 시대로 이끈 구찌의 알레산드로 미켈레. 그의 영향을 받아 패션 하우스에는 스웻글과 글리터 포인트, 지수 패치, 임브로이타리 장식 등 팬시하고 키치한 터치를 더해 재해석한 룩을 선보였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바로 페더 디테일. 1970년대 여유롭고 글래머러스한 여가 생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우아한 페더 장식은 움직임 때마다 더욱 드라마틱하게 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N°21과 매종 마르지엘라,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보일 듯 말 듯 시어한 소재의 룩에 페더 장식을 가볍게 터치했으며, 미우미우는 슈즈와 백 등 액세서리에 밋스러운 페더 장식을 매치해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에디터 이연진**



Denim Couture TOM FORD

Denim Couture DIOR

New Evening LOEWE

New Evening VALENTINO

Graphic Gallery CELINE

Bright Idea JIL SANDER

Graphic Gallery PRADA

Bright Idea MAX MARA

Pencil-case TOD'S

Pencil-case FENDI

Sporty Spice GUC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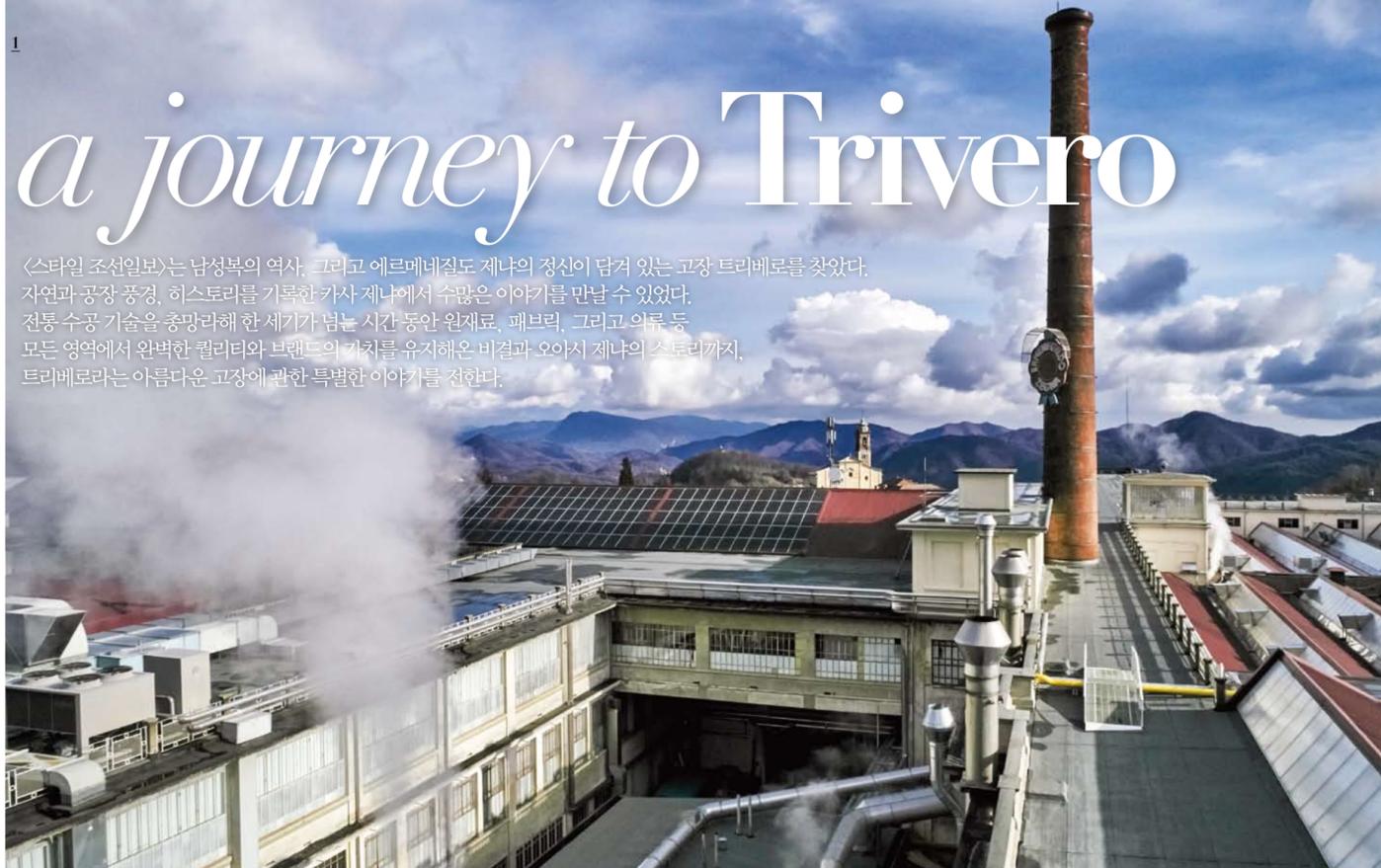
Sporty Spice LOUIS VUITTON

Feather Weather MAISON MARGIELA

Feather Weather SALVATORE FERRAGAMO

a journey to Trivero

〈스타일 조선일보〉는 남성복의 역사, 그리고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정신이 담겨 있는 고장 트리베로를 찾았다. 자연과 공장 풍경, 히스토리얼 기록한 카사 제나가 수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다. 전통 수공 기술을 총망라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원재료, 패브릭, 그리고 의류 등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퀄리티와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해온 비결과 오아시 제나의 스토리까지, 트리베로라는 아름다운 고장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한다.



2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고향 트리베로, 세계 최고의 패브릭을 위한 라니피치오 제나

밀라노에서 차로 2시간, 도시에서 꽤나 떨어진 이 알프스 북부의 산악 지대로 가는 길은 평범한 이탈리아 산길이지만,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근간이 된 트리베로(Trivero) 지역에 들어서면 모든 풍경이 최상의 패브릭을 위한,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장소가 된다. 이탈리아 트리베로에 라니피치오 에르메네질도 제나(Lanificio Ermenegildo Zegna, 제나 울 공장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급 울 섬유는 물론, 비쿠나, 알파카, 캐시미어, 모헤어, 실크 등 세계 각지에서 수급된 최상급 원재료는 이탈리아 비엘라 시를 둘러싼 해발 700m 산간 지방에 위치한 제나의 팩토리, 라니피치오 제나로 보낸다. 이 장소가 브랜드에 어떤 가치냐고 묻는다면, 브랜드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패브릭을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인 울(wool)에서 최종 완성품인 의류까지 모든 과정을 브랜드 내에서 독자적으로 컨트롤하는 '수직 통합 체계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창업주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세계 최고 퀄리티의 천연 섬유와 원료를 통해서만 품질 있는 원단과 최고급 의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비엘라 알프스 지역의 작은 마을인 트리베로에 1910년 방직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나는 최고급 천연 섬유를 원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원료 조달 방식을 고집해왔다. 예를 들어 울은 호주, 비쿠나는 페루, 알파카는 몽골 등지에서 최상의 원료를 수급하고, 원재료 경매에서 여러 조건 중에서도 원단 섬도(fineness, 촘촘함), 품질, 섬유 강도 등을 먼저보고 평가해 테스트를 거친 후 최고급 울을 구매한다.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울을 구매하는 시장에서부터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명성이 높다. 경매 카탈로그에서 특정 울 원단을 제나 퀄리티라고 묘사할 정도다. 원자재를 고르는 단계부터 원단을 전달하기까지, 모든 공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사업 초기부터 장인 정신, 퀄리티, 그리고 혁신을 모토로 원산지에서 가장 훌륭한 원자재를 손수 선별했고, 울에서 실로, 실에서 원단으로, 원단에서 우아한 남성·여성 의류를 가공하는 영구불변의 직물 제조 공정을 보존해왔다. 이러한 점은 럭셔리 패브릭 시장에서 제나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토대가 되었고, 제나가 지금까지 여타 럭셔리 브랜드에 여전히 남성복과 여성복 패브릭 상당량을 공급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패브릭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라니피치오 제나의 최대 고객이 에르메네질도 제나 그룹임에도, 유명 재단사와 원단 유통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원단이 바로 제나 원단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제나가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울 원단을 워싱(washing), 코빙(combining), 방직(spinning), 염색(dying), 와빙(warping), 피니싱(finishing), 생산 완료하는 관리 공정은 엄격하고 중요한 한 가지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 sponsored by ERMEGILDO ZEGNA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유산을 총망라한 카사 제나

제나 알파카의 영원한 정신적 고향인 트리베로에는 라니피치오 제나 이외에도 카사 제나(Casa Zegna)가 위치하는데, 이곳은 제나가 산업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과 관광·환경 사업을 통해 트리베로 지방의 발전과 환경 보호에 힘쓴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1백여 년 가까이 기업을 이어오고 있는 제나 가문에서는 창업주 에르메네질도 제나가 기틀을 다진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그의 아들 알도 제나와 안젤로 제나가 거주하던 공간인 카사 제나(Casa Zegna, 제나 하우스)를 박물관이자 문화 센터로 변모시켰다. 이 모든 과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공헌에 대한 제나의 철학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제나 재단에서 맡았다.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모든 문서 기록은 물론이고, 창업자의 산업 활동 경험을 후대에 전승하는 주요 수단인 귀중한 원단 샘플을 빠짐없이 보관해 제나의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창업자의 철학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트리베로의 제나 하우스는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방직 공장이 내려다보이는 1930년대식 건물로, 전시 공간과 기록 보관소로 이루어져 있다. 1층에 위치한 전시 공간은 원료 선택과 제품 생산부터 회사의 철학과 환경보호 및 사회 공헌 활동까지, 제나 그룹의 세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설치미술 작품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기둥과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 보관소에는 섬유 직물에 관한 기록뿐 아니라 한 기업의 역사와 환경보호 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록까지 모두 망라된 복합적인 기록 보관소다.

제나의 근간을 이루는 그린 정신, 오아시 제나(Oasi Zegna)

트리베로와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더욱 멋진 스토리는, 제나에서 추진하는 환경보호 프로젝트 이름인 오아시 제나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탈리아의 북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트리베로 지방과 라 발레 델 체르보(La Valle del Cervo) 지방을 잇는 100km²가량의 지역을 일컫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아시 제나는 제나 오아시스(oasis)라는 의미로, 산업 환경주의(industrial environmentalism), 즉 산업 발전이 환경에 기여한다는 이론과 환경보호 정신인 '그린 정신(green thought)'의 보존에 있어 유일한 예이며, 생태학자이자 제나 기업의 창시자인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기업 철학이기도 하다. 1930년대에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이탈리아 북부 산간 트리베로 지방이 내려다보이는 황폐하기 그지없던 루벨로 산의 복구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50만 그루의 침엽수를 심었으며, 파노라마가 제나(Panoramica Zegna)라고 명명된 28km 길이의 새로운 길을 닦았다. 환경에 대한 투자 외에도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근로자와 주민을 위해 트리베로 라니피치오 원단 공장 내에 '제나 센터(Zegna Center)'를 설립하고 병원, 학교, 레저 시설 등을 세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제나 가문의 새로운 세대들은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이와 같은 '그린 정신' 활동을 계승해 1993년부터 본격적인 '오아시 제나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과 자연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가이드 투어를 실시한다. 오아시 제나에서는 5~6월이 되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잔달래 산책로'를 비롯해 테마가 다양한 27개의 등산로와 2개의 트레킹로를 이용할 수 있다. 트리베로 어느 곳에서든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나는 혁신적인 '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곳곳에서 세 종류의 정보 패널을 찾아볼 수 있다. 위치 표지판, 그리고 생태학적인 그림문자로 오아시 제나에 서식하는 동식물, 그리고 광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한 학술 안내판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그린 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국제적인 환경 단체들과 협력해 환경문제에 있어 국제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니피치오 제나, 카사 제나, 오아시 제나가 담고 있는 트리베로의 스토리를 찬찬히 살펴보면 남성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Made in Italy'의 자부심을 고스란히 담은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재킷과 수트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나의 패브릭 가장자리 양쪽 셀 비지에 새겨진 'Ermenegildo Zegna - Made in Italy'는 훌륭한 품질의 보증수표인 동시에 세계적인 재단사와 까다로운 고객이 제나의 패브릭을 주문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는 바로 이 트리베로의 정신이 담겨 있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 이탈리아 브랜드의 옷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브랜드를 자신의 히스토리리로 채워나가는 자부심이 모두 어우러진 특별한 스토리다. 원재료를 패브릭이라는 놀라운 결과물로 재창조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는 제나의 본류, 트리베로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브랜드의 진정성과 노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에디터 배미진(트리베로 현지 취재)



1 트리베로와 라니피치오 제나는 1910년 설립된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패브릭 팩토리다. 2 트리베로의 주변 산,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부카네브(Bucaneve), 제나 소유의 호텔이다. 3 에르메네질도 제나가 사용했던 소품들. 4 과거에 원사를 옮기는 데 사용했던 나무 박스. 오랜 역사를 지닌 라니피치오 제나 내부는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다. 5, 6, 7, 10 카사 제나에 위치한 전시 공간은 제나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스타일의 옷은 물론, 원단을 생산하기까지의 과정, 원재료, 이를 수급하는 방법, 과거의 광고까지, 거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8 패브릭의 짜임을 디자인한 수첩. 모든 직조 방법과 기술이 수첩으로 기록되어 있다. 9, 11 캐시미어로 만든 원단의 솜털을 세척하기 위해 아직도 일부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산토카울 열매(wool wash, 티솜)를 1백년 전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12 트리베로의 카사 제나에서는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방직 공장과 외부 미술이 내려보인다.



2018 SIHH

최고의 정밀 기술과 독보적인 디자인이 하나로 어우러진 오트 올로제리(Haute Horlogerie, 최고급 수공예 시계 제작)의 걸작을 확인하고 싶다면 매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SIHH 전시를 기억해야 한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올해도 최고급 시계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브랜드의 새로운 시계를 직접 취재했다.



CARTIER

레벨리시용 된 팬더 손목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불러오는 레벨리시용 된 팬더 위치. 다이얼 위에 섬세한 골드 비즈가 마법처럼 사라졌다. 팬더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SIHH 박람회장에서 직접 제품을 보았지만, 여전히 이를 구현한 기술에 경이로움을 느낄 정도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제품이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독자적인 새로움을 추구하는 까르띠에만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랙과 그린, 레드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팬더 드 까르띠에 클래식한 디자인을 꾸준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도약에 도약을 거듭하는 까르띠에의 대표 컬렉션. 지난해 다시 선보인 이후 올해는 트라플 투어 브레이슬릿을 선보여 유연한 실루엣과 까르띠에 고유의 여성미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드러냈다. 옐로 골드와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로 만나볼 수 있다.

IWC

IWC 플래버 창립 1백50주년 한정 에디션 창립 1백50주년을 기념해 주빌레 컬렉션에 디지털 숫자를 갖춘 역사적인 플래버의 포켓 위치를 재현한 컬렉션. 회전하는 디스크에 대형 숫자로 시간과 분을 표시했던 위치에서 영감을 받아 샤프하우젠 장인들의 선구적인 업적을 기리는 모델이다. 기계식 손목시계에 디지털 시간 표시를 도입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25피스 티타늄 소재, 2백50피스 레드 골드, 5백 피스 스틸 소재로 출시한다.

포르투기저 항력 투르비옹 창립 1백50주년 에디션 올해 출시한 제품 중 가장 까다로운 기술력을 요하는 모델이며, 최초로 항력 투르비옹을 심플한 문페이스 디스플레이와 결합해 독특한 다이얼을 완성했다. 96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새로운 IWC 자체 제작 핸드 와인딩 94805 칼리버는 더욱 정확한 시간을 구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 시계에 적용된 항력 메커니즘은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VAN CLEEF & ARPELS

레이디 아펠 플라네타리움 매년 차원이 다른 예술적 경지를 이끌어내는 반클리프 아펠의 프레젠테이션은 올해 모든 방문객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답다. 이 주얼리 위치의 향연으로 시작했다. 4년 전 미드나잇 플라네타리움 위치를 선보인 이후 포에틱 아스트로노미(Poetic Astronomy)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재구성해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주를 구현한 레이디 아펠 플라네타리움 위치. 반클리프 아펠에서 독점 개발한 플라네타리움(Planétarium) 모듈을 장착한 셀프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는 태양과 가까운 행성인 수성과 금성, 자구를 달과 함께 표현했다. 각 천체의 실제 속도를 구현해 움직이도록 했다는 것이 이 멋진 시계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기능이다. 무브먼트 위에 어벤추린으로 제작한 7개의 디스크를 조립해 더욱 환상적인 우주 풍경을 완성했다. 선명한 하늘빛 티라이즈 원석이 자구를 상징한다.

크리샨트 시크릿 워치 핑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섬세하게 국화의 아름다움을 완성한 시크릿 워치. 핑크 골드 베이스에 라운드 다이아몬드, 라운드 핑크 사파이어가 섬세한 그라데이션을 연출한다. 다양한 컬러의 스톤을 블렌딩하는 것은 예술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장인들만의 기법으로, 서로 다른 골드를 결합하는 기술 역시 독보적이다. 꽃잎의 아름다움, 풍성한 화환, 나선형으로 펼쳐진 유려한 형태는 단 하나뿐인 유니크 피스의 독보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몽블랑 칼리버 MB R200



MONTBLANC

스타 레거시 폴 캘린더 클래식 파인 위치메이킹 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스타 레거시 컬렉션을 재해석한 라인을 선보인 몽블랑. 그중 스타 레거시 폴 캘린더 모델은 시, 분, 초 인디케이션과 요일, 일, 월, 문페이스와 결합해 한눈에 매력적인 다이얼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이얼 하단에 자리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달의 모양은 문페이스 위치의 매력을 드러낸다. 42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버전에 오토매틱 칼리버 MB 29.12를 장착해 1백60년간 이어진 미네르바의 정신을 확실하게 각인시킨다.

1858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산악 탐험 정신을 반영한 포켓 위치와 크로노그래프를 재해석한 버전의 1858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더욱 빈티지한 느낌의 브론즈 케이스,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였는데, 직경 42mm의 케이스에 돛 처리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더해 더욱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느낌을 준다. 케이스 백에는 몽블랑 산의 형상과 나침반, 교차하는 2개의 아이스 피크를 새겨 산악 탐험 정신을 강조했다. 몽블랑 컬렉션 중 드물게 나토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을 선보인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RICHARD MILLE

RM 53-01 투르비옹 파블로 맥도너우 제네바 SIHH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공개한 새로운 컬렉션의 영상은 진정성과 시계가 담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세계 최고의 폴로 선수 파블로 맥도너우(Pablo Mac Donough)와 파트너십을 맺어 탄생시킨 이 가볍고 강력한 RM 53-01에는 최초로 카본 TPT® 케이스에 라미네이트 사파이어 글라스를 장착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덕분에 투명한 유리를 통해 서스펜션 구조의 투르비옹 칼리버가 고스란히 드러나 더 드라마틱한 디자인이 탄생한 것. 강한 충격이 빈번하게 가해지는 폴로 경기에서 맥도너우가 다양한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감안해 오랜 시간 동안 시도한 리처드 밀의 충격 저항 실험 연구 결과를 시계에 접목했다. 일반적으로 충격에 약하다고 알려진 투르비옹 위치를 폴로 챔피언들이 경기 중에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강력한 도전 정신을 갖춘 리처드 밀에게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이 시계에 관한 자세한 스토리는 리처드 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직 30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해 소장 가치가 높다.

HERMÈS

가레 H 올해 처음 SIHH에 참가한 에르메스는 유쾌함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오브제로서 시계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2010년에 첫선을 보인 후 올해 마크 베르테에가 새롭게 디자인한 가레 H(Carré H) 위치는 직각 모티브 기호체로 마감한 다이얼, 각이 살아 있는 핸즈와 인텔스가 눈에 띄고, 숫자 0을 사용한 디자인은 새로운 미적 균형을 보여준다.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컬 기능의 에르메스 매뉴팩처 무브먼트 H1912를 장착했으며, 5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아르 카사크** 앙리 도리나가 1978년에 디자인한 아르 위치의 컬러풀한 버전인 아르 카사크(Arceau Casaque) 위치. 스틸 케이스에 로뎀 도금한 다이얼 베이스 위로 예술적인 샹프레 및 레베 기법을 사용해 옐로·그린·레드·블루 컬러를 완성했다. 헤링본 모티브에 말 형태가 드러나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표현한다. 마치 승마장에서 펼쳐지는 승마 경기처럼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라인을 그려내는 움직임도 아름답다.



1858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RM 53-01 투르비옹 파블로 맥도너우



팬더 드 까르띠에



크리샨트 시크릿 워치



레이디 아펠 플라네타리움



플래버 창립 1백50주년 한정 에디션



포르투기저 항력 투르비옹 창립 1백50주년 에디션



IWC 94200 칼리버



에르메스 가레 H



피아제 알티플라노 올티메이트 컨셉

PIAGET

피아제 알티 플라노 올티메이트 컨셉 초박형이라는 영역에서 한계를 용납하지 않는, 울트라 신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피아제. 울트라 신 위치를 만드는 DNA를 고스란히 살려 세계에서 가장 얇은 4.3mm 셀프와인딩 워치인 알티 플라노 올티메이트 오토매틱을 출시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제품은 4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개발로 완성한, 두께가 단 2mm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얇은 메카니컬 핸드와인딩 워치 알티 플라노 올티메이트 컨셉.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 자체로 우아함의 구원이라는 피아제의 모토는 당분간 다른 브랜드가 넘보기 힘든 가치가 될 것이다.

피아제 포제션 워치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주얼리인 포제션 링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피아제의 새로운 여성 워치 컬렉션. 회전하는 베젤의 운동감은 자유로움과 마법적인 매력을 선사하며, 골드 케이스 워치를 구매하면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을 매칠할 수 있도록 별도 제공한다.

JAEGER-LECOULTRE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메모박스 & 크로노그래프 월드 타임 1968년 출시한 아이코닉 모델인 메모박스 폴라리스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출시한 워치.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모델로 3핸즈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크로노그래프 월드 타임을 동시에 출시했다. 그중 오직 1천 피스 한정 제작한 메모박스 워치는 예거 르쿨트르의 명성을 널리 알린 일대 기능을 갖추고 있다. 메모박스 폴라리스 시계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것으로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56을 장착하고 있다. 자체 제작 크로노그래프와 월드 타임 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 월드 타임 모델 역시 시계 마니아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제품이다. 2개의 크로노그래프 푸셔와 시트 디스크를 제어하는 10시 방향의 추가 크라운을 장착해 시계 작동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마니아에게 추천한다. 추가 크라운을 통해 전 세계 23개 도시의 현지 시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65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752를 장착했다.

VACHERON CONSTANTIN

피프티식스 보다 많은 이들이 바쉐론 콘스탄틴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대중적인 요소를 담아 출시한 피프티식스(FIFTYSIX®) 컬렉션. 1956년 제작된 아이코닉 모델인 레퍼런스 6073에서 영감을 받아 매뉴팩처를 상징하는 말테 크로스를 가장 주요한 모티프로 활용했다. 48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새로운 기계식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1326을 탑재했다. 백 케이스를 통해 코트드주네브(Côtes de Genève) 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캐비노티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오너먼트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칼리버를 탑재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가치를 모두 보여주는 모델. 지난 2005년 바쉐론 콘스탄틴 설립 2백50주년 기념 워치인,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손목시계 투르 드 릴에서 영감을 받은 워치로, 트윈 다이얼을 이용해 각 16개, 15개에 달하는 엄청난 기능의 컴플리케이션을 작동할 수 있기에 작은 우주극 부를 만한다. 사진 속 제품은 시계 케이스 전체에 오직 바쉐론 콘스탄틴에서만 가능한 19세기 빅토리아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새공을 더했다. 브랜드의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캐비노티에 부서의 정인이 정교하게 만들어낸 작품으로, 조각품의 자태를 드러낸다. 유니크 피스, 캐비노티에 문구를 백 케이스에 인그레이빙했다.

PANERAI

라스트로노-루미노르 1950 투르비용 문페이스 이퀘이션 오브 타임 GMT 문페이스 인디케이터와 판광 크리스탈을 사용해 날짜를 표시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춘 오프리네 파네라이 최초의 타임피스. 천재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헌정하는 컬렉션으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유니크한 제품이기도 하다. 새로운 라스트로노의 스킵 레톤 무브먼트인 P. 2005/GLS의 뒷면에서는 2개의 중첩된 디스크가 함께 회전하며 달의 위상을 보여주는 낮/밤 인디케이터가 아름답게 움직인다. 맞춤형 제품 이기에 기능과 케이스 소재, 마감 방식, 슈퍼 루미노라 핸즈 컬러까지 선택할 수 있다.

루미노르 두에 3 데이즈 오토매틱 파네라이의 클래식 디자인을 진화시킨 클래식한 모델로 파네라이 시계 중 가장 얇고 실용적인 모델이다. 큼직한 아방 숫자,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OP XXXIV 매뉴팩처 칼리버, 돌발적인 충격으로부터 와인딩 크라운을 보호하는 특허 받은 브리지 레버 장치까지, 파네라이의 시그니처를 모두 갖추고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레드 골드 케이스에 직경 42mm 및 브랜드 최초의 38mm 사이즈로 출시했다.

ROGER DUBUIS

엑스칼리버 아벤타도르 S 최고의 명저인 람보르기니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워치. 로저 드뷔의 상징인 스텐레톤 처리한 더블 스프링 밸런스를 탑재한 RD103SQ 칼리버를 장착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담았다. 45mm의 볼드한 케이스는 스텐레톤 기법을 적용한 카본 소재로 가볍고 착용감이 뛰어나다. 선명한 블루 컬러 리버로 오버 몰딩한 티타늄 컨테이너는 확실한 시각적 자극을 선사한다. 전 세계 단 88개 한정 생산한 컬렉션으로, 로저 드뷔만의 독특함을 모두 반영했다.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피렐리 오토매틱 스텐레톤 세계적인 타이어 브랜드 피렐리와 콜라보레이션해 탄생시킨 워치. F1 경기에서 우승을 이끈 피렐리 타이어를 직접 워치 스트랩에 적용했다. 마이크로 로터를 장착한 스텐레톤 처리된 오토매틱 RD820SQ 칼리버를 탑재했다. 엑스칼리버 고유 디자인에 복잡하고 정교한 스텐레톤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은 로저 드뷔가 하이엔드 워치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단 88개 한정으로 선보인다.

AUDEMARS PIGUET

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오데마 피게는 올해 브랜드의 심장과 같은 로열 오크 오프쇼어(Royal Oak Offshore) 탄생 25주년을 맞아 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단 2백50개의 리에디션 모델로 선보였다. 1993년 출시해 익스트림 스포츠 워치, 하이엔드 워치의 진일보한 발전에 놀라운 기여를 한 오데마 피게의 로열 오크 오프쇼어의 리에디션인 만큼 뒷면에 25주년 기념 문구를 각인했다.

로열 오크 오프쇼어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두 가지 버전의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도 각 50개 한정으로 함께 출시했는데, 아방가르드한 디자인과 건축적 구조의 입체감이 돋보이는 다이얼은 마치 무브먼트가 베젤에 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로얄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45mm 케이스는 매우 볼드하고 견고한 느낌을 선사한다. 1백73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핸드와인딩 칼리버 2947을 장착했다.

A. Lange & Söhne

1815 크로노그래프 기본에 충실한 랑에 온트 죄네의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1815 크로노그래프 모델에 올리는 핑크 골드 버전을 추가했다. 클래식한 화중시계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1/5초까지 정확하게 읽어내는 확실한 이 위치의 가장 큰 매력이다. 외곽의 펄스미터 마커는 30회의 심장 박동수를 셀 수 있도록 고안된 기능으로, 하이엔드 워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요소다. 6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수동 와인딩 칼리버 L951.5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리틀 랑에 1 진짜 시계를 아는 여성들에게 권하는 새롭게 출시된 리틀 랑에 1의 세 가지 모델. 평소 랑에 온트 죄네의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흠모하던 여성 시계 애호가라면 반색할 만한 소식이다. 기묘세 패턴 위에 놓인 비대칭적인 다이얼, 브랜드의 상징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형 사이즈 날짜창까지, 모두 오직 여성을 위한 36.8mm 사이즈로 선보인다. 에디터 배미진



라스트로노-루미노르 1950 투르비용 문페이스 이퀘이션 오브 타임 GMT



엑스칼리버 아벤타도르 S



리틀 랑에 1



파네라이 루미노르 두에 3 데이즈 오토매틱



피아제 포제션 워치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메모박스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 월드 타임



캐비노티에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오너먼트



피프티식스



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로열 오크 오프쇼어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

(왼쪽부터) 화이트 재킷 4백47만원,
 니트 롱 1백50만원, 화이트 팬츠
 2백10만원, 브라운 슬림핏 가격 미정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꾸뛰르**.
 그레이 재킷 가격 미정, 블루 그레이
 칼라 스웨트셔츠 가격 미정, 팬츠
 가격 미정, 화이트 스니커즈 90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집도 제나 꾸뛰르**.

Get a Move

청량한 컬러, 소프트하고
 크리스피한 소재, 기대 이상으로
 가볍고 경쾌하다. 빅 하우스들의
 새로운 남성복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 wook



(왼쪽부터) 그레이 체크 패턴
 재킷 2백71만원, 레오파드
 니트 롱 1백15만원, 옐로
 팬츠 1백40만원 모두 **구찌**.
 그레이 체크 재킷 2백71만원,
 베스트 1백29만원, 화이트
 셔츠 1백29만원, 그레이 팬츠
 1백10만원 모두 **구찌**.



(왼쪽부터) 프린팅 셔츠, 버건디 슬리브리스, 베이지 팬츠, 브라운 신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지프 업 디테일의 버건디 니트 톱, 팬츠,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왼쪽부터) 오렌지 컬러 체크 아노락 재킷, 화이트 티셔츠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블랙 조거 팬츠 가격 미정 **엘프리오 아르마니**, 스타드 장식 신들 슬리퍼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오렌지와 블랙 컬러 스트라이프 패턴 재킷, 화이트 프린트 티셔츠, 블랙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블루 태슬 장식 블로퍼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왼쪽부터) 그레이 재킷, 네이비 니트 탑, 스트라이프 셔츠, 블루 크롭트 팬츠, 레이스업 슈즈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스파이스 수트, 블루 셔츠, 타이모두 가격 미정 오프라오 아르마니, 레이스업 슈즈 가격 미정 지미유.



(왼쪽부터) 블랙 더블브레스트 재킷,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레더링 블랙 스카프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옴므, 블랙 테일러드 싱글 재킷, 블랙 셔츠, 블랙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다음 옴므.



(왼쪽부터) 푸크시아 핑크
블루중, 화이트 터틀넥, 하이롭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발리,
대님 태일라드 팬츠 가격 미정
토츠, 포켓 디테일의 블루 재킷,
블루 셔츠, 머플러, 베이지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발렌티노, 화이트
스니커즈 1백만원대 다들 올드.



(왼쪽부터) 브라운 레더 재킷 5백만원대,
브라운 셔츠 90만원대, 타이 20만원대,
그레이 팬츠 1백만원대, 브라운 레이스업
슈즈 90만원대 모두 보테가 베네타,
스트라이프 패턴 재킷 9백만원대, 핑크
셔츠 90만원대, 그레이 스트라이프 팬츠
1백만원대, 마스터드 컬러 슈즈 90만원대
모두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 02-515-5840
발리 02-3467-8935
토츠 02-3438-6008
다들 올드 02-3438-0104
발렌티노 02-2015-4653
에르메스 02-544-7722
에르메네집토 재나 꾸뛰르 02-3453-2287
루이 비통 02-3432-1854
자이츠 02-3443-9469
엠펙시오 아르마니 02-540-1115
몽클레르 02-514-0900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구찌 1577-1921

헤어 & 메이크업 김환
모델 박경진, 정용수
어시스턴트 문진호, 김원민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Brightening youth glow

화이트닝 케어를 소홀히 하고 싶지 않지만 자극이 없는 제품을 찾고 있다면, 새로운 제품만 고집하지 말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 화이트닝 라인에 주목하자. 말 그대로 클래식이 영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화이트닝에 대한 탄탄한 노하우가 집결된 디올스노우 라인은 그간 여러 번의 리뉴얼을 통해 믿을 만한 성분과 확실한 효과를 자랑하는 것은 물론, 스킨케어 제품부터 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3백65일 빈틈없는 화이트닝 케어를 도와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제품의 선택 폭 또한 매우 넓다. 특히 몇 번 두드러지는 것만으로 메이크업 효과와 함께 손쉽게 화이트닝 효과를 볼 수 있는 디올스노우 쿠션 팩트는 부담 없이 화이트닝 케어를 시작할 수 있는 일석이조 아이템!

(왼쪽부터) **디올스노우 블룸 퍼펙트 모이스트 쿠션** 스위스 디올 가든에서 자란 에델바이스를 함유한 플루이타 타입의 쿠션 팩트. 피부에 닿자마자 즉각적인 산뜻함을 선사하며 피부 정돈과 보습, 보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사하고 건강한 피부 본연의 빛을 이끌어내는 글로 스킨을 연출하기에 제격. 15gX2개(리필 포함) 10만원대. **디올스노우 큐어 컨센트레이트 오브 라이트 브라이트닝 밀크 세럼** 외부 자극으로 약해지고 어두워진 피부에 깊이 흡수되어 진정 효과를 발휘하는 동시에 피부결을 개선해주고, 톤을 한층 밝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멀티 톤업 세럼이다. 30ml 16만15천원대. 모두 디올. 문의 080-342-9500



3-in 1 whitening

늘 새로운 제품을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선보이는 샤넬 뷰티는 화이트닝 신제품 역시 남다른 감각과 콘셉트로 접근해 마백 케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뷰티 루틴이 간단한 바쁜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투명함과 심플함, 그리고 미니멀리즘을 키워드로 선보이는 2018 르 블랑 컬렉션은 제품 중 하나만 사용해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제품을 3-in-1 콘셉트로 고안한 것이 특징. 무엇보다 화이트닝 라인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브라이트닝 효과의 페이스 전용 오일은 수분이 느껴질 만큼 촉촉하고 보습력이 충분한 오일로, 피부 광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피부 보습 및 빛노출에 초점을 두어 스킨케어에는 물론 메이크업 후에 발라도 좋은 획기적인 제품이다.

(왼쪽부터) **샤넬 르 블랑** 샤넬 최초의 브라이트닝 페이스 오일로, 실키한 오일이 피부에 부드럽게 닿자마자 기름지지 않고 빠르게 흡수된다. 자연에서 추출한 매화꽃 성분이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준다. 50ml 16만18천원. **샤넬 르 블랑 세럼** 매화꽃 추출물, 화이트닝과 진정 기능을 동시에 갖춘 샤넬의 독자적인 TXC™ 활성 성분, 그리고 광채를 선사하는 진주 단백질 함유했다. 30ml 17만6천원. **샤넬 르 블랑 블사이트 크리에이터 마스크** 피부 재생을 위한 쉽고 간편한 나이트 전용 브라이트닝 & 콜라겐 마스크. 매화꽃 추출물과 진주 단백질 성분을 포함해 낮 동안 자극받은 피부를 재생시킨다. 50g 10만2천원. **샤넬 블루 세럼**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블루 존에서 채취한 활성 성분을 담아 칙칙한 피부 톤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노화의 징후를 케어하는 특별한 세럼이다. 30ml 14만18천원. 모두 샤넬. 문의 080-332-2700



2018 brighter skin

이제 화이트닝은 더 이상 피부를 깨끗하고 하얗게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과거엔 자외선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잡티 제거에만 집중하면 됐지만, 이제 매일같이 노출되는 미세 먼지와 휴대폰, PC에서 발생하는 블루 라이트에도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왔으니, 당연히 화이트닝에 대한 요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다 적극적인 화이트닝 케어를 원한다면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2018년 화이트닝 트렌드와 제품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Whitening specialist

내 피부 타입과 목적에 맞는 제품만 선택해 사용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화이트닝 라인 역시 전체 라인을 새롭게 출시하는 대신, 보다 집중적인 마백 케어를 도와줄 스페셜 케어 제품을 선보이는 추세다. 기존의 데일리 뷰티 루틴에 피부 고안에 따른 화이트닝 제품을 하나만 추가해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뷰티 카테고리 역시 과거처럼 명확히 구분 짓지 않기 때문에 마백, 안티에이징, 보습 등의 효과가 모두 포함된 특별하고 간편한 올인원 제품이 각광받고 있는 것. 지금 당선이 화장대에 추가해야 할 단 하나의 효과적인 화이트닝 제품을 선택하라면 바로 이것이다.

(왼쪽부터) **시슬리 휘트 블랑 인텐스브 디크 스맛 코헤터** 동근 꿀 형태의 울음 털이 장착되어 디크 스맛이나 질탄만 부분적으로 화이트닝 집중 케어를 할 수 있다. 7ml 15만원대. **시슬리 휘트 블랑 브라이트닝 데일리 디펜스 플루이드** 자외선 차단은 물론 미세 먼지와 공해 등 외부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를 모두 차단한다. 50ml 33만원대. 문의 080-549-0216 **황공 블랑 엑스퍼트 필링 + 톤업 앰플** 낮과 밤 피부 환경에 따라 특별한 케어가 가능한 두 가지 포올러를 함유한 앰플. 30ml 15만1천원. **황공 UV 엑스퍼트 톤업 자외선 차단제** 스킨케어(자외선 차단제)와 동시에 피부 톤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30ml 6만원대. 문의 080-001-9500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얼티메이트 레디언트 화이트 유스 컬렉션** 피부 자극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순한 화이트 투베로즈에서 얻은 순도 높은 추출물을 함유한 고농축 영양 크림이다. 50ml 39만18천원. 문의 02-3440-2772



Luxe brightening

하이엔드 뷰티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화이트닝 라인은 브랜드가 주는 신뢰와 고귀한 성분, 효과를 넘어 고급스러운 뷰티 리추얼까지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품격이 다르다. 오랜 연구와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제품을 선보이기에, 비단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톤을 칙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목, 어깨, 데콜테를 케어하는 보디용 화이트닝 제품을 하이엔드 뷰티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또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성분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외부 요소에 취약한 마백 성분을 피부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 역시 함부로 모방할 수 없는 부분이니, 쉽게 접근 가능한 가격대는 아닐지라도 사용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지 않은가!

(왼쪽부터) **데코프테 AQ 화이트닝 크림** 럭셔리한 텍스처와 향, 기술력 등 모든 걸 충족하는 마백 회복 크림. 25g 24만원대. 문의 080-568-3111 **콜레드보 보메 세럼** **공상드레 에글라시앙 푸르 르 코르** 목, 팔, 데콜테 등 애매하고 환한 보디를 위한 보디 전용 브라이트닝 세럼이다. 100ml 10만원대. 문의 080-564-7700 **라프레리 화이트 케비아** 화이트닝 성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골드 케비아 성분과 비타민 C를 특수 캡슐에 담아 선보인다. 30ml 67만6천원. **라프레리 화이트 케비아 크림** 진귀한 골드 케비아 추출물이 어둡고 칙칙한 피부, 유해 환경에 노출된 피부를 집중 케어해 건강한 진춧빛 광채를 되살려주는 브라이트닝 세럼이다. 60ml 88만18천원. 문의 080-511-6626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Happy together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취향을 드러내는 향수를 서로에게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좋은 취향을 지닌, 아름다운 커플을 위한 향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기운에 유행어 시계 방향) **프라다 로즈** 1688 **로즈** 로제 샴페인 섹시인 프라다의 새로운 남녀 컬렉션 중 앵버와 아이리스, 진저, 네롤리의 향기를 품은 깨끗하고 피부다려한 남성 향수. 신틸한 라이트 블루 컬러의 사피노 레드 패키지가 덕분이다. 50ml 9만 9천원, 문의 02-3443-1805 **바이레드 벨벳 헤이즈** 코코넛 워터와 파플리, 카키오, 오일드 머스크 같은 유니크한 성분으로 몽환적인 향기를 지니는 환상적인 향수. 성숙하고 관능적인 향을 원하는 신부에게 추천한다. 신틸한 향기가 특징이지만, 바이레드 특유의 깔끔하고 신틸한 진향의 매력도 느낄 수 있다. 50ml 18만5천원, 문의 02-3479-1688 **로라 베르가모테 22** 가장 순수한 시트라스 향, 독특하고 진취적인 향기를 원하는 커플에게 추천하는 향수. 주문 즉시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료의 신선한 느낌이 더욱 정교하게 유지된다. 패키지와의 몰로컬 향기로 시계 지름의 앵버와 머스크의 풍성한 블렌딩으로 신혼의 아름다운 추억을 더욱 맛있게 기억하도록 할 듯. 50ml 23만원, 문의 02-3440-2591 **에디션 드 파뮌 프라데릭 말 가젤** 콜리더와 관능적이고 화려한 향기가 돋보이는 신부를 위한 향수. 여성스러움, 우아함, 세련된 에디투드를 모두 담은 나치 향수의 기복을 보여주며, 투베르조스의 강렬하고 생애이세결한 향기를 품어 있게 표현했다. 50ml 32만3천원, 문의 02-3479-6258 **화이트리본 포터레이트 컬렉션 로즈 조지 오 드 파뮌** 영국 왕실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속 가상 인물을 향기로 표현한 향수 컬렉션 중 스톤의 꽃을 드라마틱하게 패키지에 반영한 귀족적인 디자인의 향수. 잘 익은 과일, 앵버, 통가비이 아우라진 풍성하고 따뜻한 향기는 특별한 워딩 데이를 받은 관능적인 제품으로, 그런 이룬드와 장미, 클래식한 샌들우드 향까지 만날 수 있다. 30ml 8만1천원, 문의 02-3443-1805 **존 바비토스 아인산 퓨어** 두, 무 스카의 패키지가 디자인으로도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존 바비토스 아인산 컬렉션의 새로운 버전. 종류별로 수직하는 이틀이 있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향수로, 신숙 고요한 자정 낙원으로 떠는 여행을 의미하는 부드러운 향기가 특징이다. 신틸한 레몬과 오렌지 향에 풍성한 흰 꽃향기를 더해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75ml 8만2천원, 문의 02-3443-1805 **에르메스 데르메스 퓨어 파뮌** 2006년 출시되어 오랜 시간 동안 브랜드의 시그니처 향수로 자리 잡은 클래식한 향수. 가장 고전적인 향수 성분인 오렌지, 자몽, 후추, 베르베르, 삼나무를 소재로 해 복잡한 우리 향과 상고운 그린의 신틸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한 매력적인 제품이다. 75ml 16만5천원, 문의 02-310-5174 **에디터 베이진**

beautiful Technology

전 세계 1천만 의소 자가 과학 한, 현존하는 티다바이스 중 가장 진보한 기술력을 은 티다바이스 전문 브랜드 큰(Silk'n). 집에서 게 고 탄력 있는 피부를 떠 는 신세계를 경 하고 싶다면 고사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티다바이스, 큰을 겨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글로벌 No.1 뷰티 다바이스 전문 브랜드, 실큰
아무리 바빠도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여자들의 마음이다. 보다 적극적인 뷰티 케어를 원하지만,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작용이 걱정되고, 무엇보다 간편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기대한다면 홈 케어 뷰티 다바이스에 주목하자. 평소의 뷰티 루틴에 10~20분의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시술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뷰티 다바이스를 사용하게 앞서 무엇보다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단 하나의 브랜드를 꼽으라면 뷰티 기기의 원조이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 뷰티 다바이스 전문 브랜드 실큰이다. 실제 피부과 전문 의료 장비를 만드는 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자체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뷰티 다바이스 브랜드와도 기술력을 공유하고 판매하는 실큰은 그만큼 가장 진보하고 확실한 뷰티 다바이스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간다. 페이스와 보디 탄력, 매끈한 피부를 위한 홈 케어용 제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와의 뷰티 다바이스를 선보이니, 이런 전문적인 뷰티 케어를 모두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입아버린 V라인을 찾다, 페이스 타이트
실큰에서 선보이는 제품 중에서도, 최신 기술과 장수를 담은 결정체는 바로 고주파 피부 관리기인 페이스 타이트다.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바이오파고 주파(RF) 에너지, 세포 재생, 콜라겐 생성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레드 라이트 테라피,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자(PI) 열에너지 모두 결합한 HT™(Home Tightening Technology)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다. 사실상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적용한 뷰티 다바이스는 실큰의 페이스 타이트가 유일하다. 피부과 시술에서도 중요하게 적용하는 세 가지 기술을 적용해 입자입에 2회, 부위별 5분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탄력, 피멍질, 피부 톤까지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다. 관리 방법은 매우 쉽다. 수분 겔을 출력창에 소량 바른 후 1~5분까지 본인이 원하는 에너지 레벨을 선택해 피부결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되는데, 피부와 향도의 온한 느낌이 아프거나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다. 관리 후 즉각적으로 피부가 부드럽고 쫄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입자입에 2회, 총 10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확실하게 달라진 페이스 라인을 기대할 수 있다. 55만원.

중요한 날을 위한 비밀 무기 뷰티 다바이스에 관심도 있고,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다바이스로 홈 케어를 하고 싶어요. 특히 방송 출연을 하거나 특별한 날을 앞두고 사용하고 싶고, 피부과 시술의 경우 당일 컨디션이 보장되지 않아서 홈 케어 다바이스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고 부담도 덜 되더라고요. 실큰 페이스 타이트는 사용해도 수월 뿐만 아니라 10~20분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차진 얼굴선이 즉각적으로 매끈해져서 만족스러워요. 얼굴의 동선 근육을 풀어주며 마사지해주면 지친 피부의 피로감이 사라지는 게 온한 느낌이 들고, 다음 날 피부에 탄력이 붙어 확실하게 메이크업도 편하게 잘 받아요. _ 에이즈립 아티스트 박태윤

홈 케어 기기의 혁신, 글라이드 익스프레스
팔다리, 겨드랑이는 물론 인종, 비키니 라인까지 체모 없이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는 건 어떤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뷰티 케어가 되었다. 과도한 수렴과 체모로 고민하는 남성들 역시 레이저 제모 시술을 고려할 정도로, 제모는 누구에게나 고민되는 부분. 실큰을 대표하는 홈 케어 제모 기기인 '글라이드'는 집에서 간편하게 자주 제모를 해야 하는 부위나 드러내기 어려운 은밀한 곳까지 꼼꼼하게 제모할 수 있어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다. 올해 새롭게 출시하는 '글라이드 익스프레스'는 실큰 제모기 중 가장 진화한 버전으로, 기존의 글라이드 150K 제품보다 2배 더 강력해진 것은 물론, 1.5초 조사 효과로 동일 시간 내에 더욱 빠르게 제모할 수 있다. 또 레이저 조사 버튼을 누른 후 미끄러져 옮겨주면 계속해서 레이저가 조사되는 글라이드 필싱 기능은 물론, 무제한 조사 기능까지 더해 더욱 자유롭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2주에 한 번씩, 2개월 사용으로 체모 성장 주기인 18~24개월 동안은 제모가 발견되는 대로 글라이드로 제모하면 지속적인 제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9만원, 문의 02-790-6023 **에디터 권유진**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홈 케어 기기
"수년 전 피부과 레이저 제모 시술을 했음에도 여전히 신털이 나는 제모로 고민하던 실나,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 제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피부과에서 받는 레이저 제모는 비용도 그렇고 비싼 일회성 장치라서 내뺐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인종이나 비키니 라인처럼 세심하게 자주 케어해야 하는 부위는 오히려 홈 케어 기기가 더욱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적용했는데, 소리는 조금 크지만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자극이 지 않아서 적용된 후부터는 4~5분까지 출력을 높여 사용했어요. 사용법도 쉽고 가족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도 절약되어 더욱 좋죠. 2회 정도 사용했을 때부터 제모가 자라는 속도가 확실하게 느려졌고, 일고 늘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몇 번만 더 관리하면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해요. _ (스타일 조신원) 에디터 권유진



© sponsored by SILK'N

blooming Spring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얼굴에 생기 있고 화사한
꽃잎 컬러를 물들일 2018 스프링 메이크업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수블리미지 라 크림** 아주 고가의 크림인데도 두꺼운 데이지향을 형성해, 샤넬 뷰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럭셔리 인티에이징 크림. 고급 스킵에서 테라피를 받은 듯 피부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쫄쫄하고 부드러운 텍스처와 추운 겨울에도 걱정 없는 강력한 보습력으로 한번 사용하면 샤넬이 되면 이 크림에 충성하게 된다고. 2006년에 첫선을 보인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성분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특히 라 크림의 핵심 성분인 바닐라 플레놀리올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보다 관백하고 최상의 생분을 추출하기 위해 프랑스 가장 좋은 야자기스카르 바닐라의 열매, 꽃 등 모든 요소를 연구하고 결핵해 과거의 제품보다 더욱 강력한 라 크림을 탄생시킨 것.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보습은 물론 주름 완화, 탄력과 얼굴 윤곽 개선까지, 노화의 징후를 개선하는 탁월한 효과를 선사한다. 50g 49만원. 문의 080-332-2700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퍼 라 크림이 이제 갈색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백화점 코즈메틱 브랜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샤넬이 자 영가야 팔에 추천하는 화장품으로도 유명한 스테디셀러 제품. 무려 30년 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며 진화한 6세대 갈색병 제품은 피부 탄요며 효과의 최자라 불릴 만큼 뛰어난 피부 재생 효과를 발휘한다. 피부 회복 능력이 극대화되는 밤 사이, 피부 스스로가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피부 강화 및 용기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담았으며, 야에 요즘 가장 큰 이슈인 미세 먼지, 공기, 자외선 등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 안티폴루션 테크놀로지를 다뤘다.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탁월해 자기 전에 듬뿍 바르면, 다음 날 아침 숙면을 취한 듯 볼알고 촉촉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50ml 15만 원대. 문의 02-3440-2772

클라리프스 더블 세럼 1965년에 처음 출시해 현재 8세대 버전으로 선보이는 더블 세럼. 오일 성분과 워터 성분이 2개의 용기로 분리되어 있다가 평평 시 피부 유수분 밸런스와 동일한 황금 비율로 섞여 나와 최적인 피부 밸런스를 맞춰준다. 7세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더욱 가벼워진 텍스처와 사용 목적에 따라 평평 시 작은 양, 많은 양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새로운 보틀로 업그레이드했다. 성분 역시 강화했는데, 기존의 20가지 식물 성분에 인티에이징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강화형 참깨 피피부에 나타내는 모든 노화의 징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30ml 11만원. 문의 080-543-9052

설화수 윤조예센스 단일 제품 판매 누적 매출액 1조원을 달성했다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국내는 물론 해외 고대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설화수의 대표 예센스. 1997년에 세간 후 가장 첫 단계에 비하면 세계 최초의 항방 부스틴 예센스로 선보이며 여성들의 뷰티 루틴을 바꾼 이 제품은 20년 넘게 줄곧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윤조예센스의 핵심 원료인 자란, 지황, 연, 옥죽, 백합으로 이루어진 자란단*이 피부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어 영양, 생기, 투명도, 탄력, 자생력 등 총체적인 피부의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 기존 뷰티 루틴에 이 제품 하나만 추가해도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듯. 60ml 99만원. 문의 080-023-5454

랑콤 제-피피오 더블 드림 앰플 출시 당시 이 예센스를 사용하지 않는 뷰티 에디터가 없었을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피피오 예센스의 차세대 버전인 제-피피오 더블 드림 앰플. 프라보이오닉스 성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한 제-피피오 프라보이오닉스 예센스와 순도 98%의 항산화 열물을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선사한다. 제품 개봉과 동시에 고순도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화되어 30일간의 사용을 권장하는 프라보이오닉스 콘센트의 인티에이징 앰플로, 피부 간에 유익한 유산균을 풍부하게 함유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노화의 징후를 예방 개선한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의 기초 체력을 높여 피부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효과 또한 획득할 수 있다. 20ml 11만원대. 문의 080-001-9500

클레오보 보메 크림 프로텍티브 UV SPF 50+/PA+++ 자외선 차단제 키티고리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지만, 사용해보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텍스처, 발림성, 효과, 향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스킵케어에 가까운 프라보이오닉스 차단제. 메이크업 이스트와 스킵이 이 사랑하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인식되어 나면서 미니애폴을 형성한 베스트셀러다. 자외선을 포함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개발한, 생크림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와 피부 문양 효과가 더해진 용량이다. 트로피컬 향과 효과, 안티폴루션 기능, 진피 절기세포 손상 억제 효과 등 더욱 강력해진 스킵케어 성분과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 50ml 15만 원대. 문의 02-3438-6032 에디터 **권유진**

always Best

고집스러운 연구와 리뉴얼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는,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코즈메틱 열전.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데는 다그만한 이유가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수블리미지 라 크림** 아주 고가의 크림인데도 두꺼운 데이지향을 형성해, 샤넬 뷰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럭셔리 인티에이징 크림. 고급 스킵에서 테라피를 받은 듯 피부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쫄쫄하고 부드러운 텍스처와 추운 겨울에도 걱정 없는 강력한 보습력으로 한번 사용하면 샤넬이 되면 이 크림에 충성하게 된다고. 2006년에 첫선을 보인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성분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특히 라 크림의 핵심 성분인 바닐라 플레놀리올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보다 관백하고 최상의 생분을 추출하기 위해 프랑스 가장 좋은 야자기스카르 바닐라의 열매, 꽃 등 모든 요소를 연구하고 결핵해 과거의 제품보다 더욱 강력한 라 크림을 탄생시킨 것.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보습은 물론 주름 완화, 탄력과 얼굴 윤곽 개선까지, 노화의 징후를 개선하는 탁월한 효과를 선사한다. 50g 49만원. 문의 080-332-2700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퍼 라 크림이 이제 갈색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백화점 코즈메틱 브랜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샤넬이 자 영가야 팔에 추천하는 화장품으로도 유명한 스테디셀러 제품. 무려 30년 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며 진화한 6세대 갈색병 제품은 피부 탄요며 효과의 최자라 불릴 만큼 뛰어난 피부 재생 효과를 발휘한다. 피부 회복 능력이 극대화되는 밤 사이, 피부 스스로가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피부 강화 및 용기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담았으며, 야에 요즘 가장 큰 이슈인 미세 먼지, 공기, 자외선 등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 안티폴루션 테크놀로지를 다뤘다.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탁월해 자기 전에 듬뿍 바르면, 다음 날 아침 숙면을 취한 듯 볼알고 촉촉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50ml 15만 원대. 문의 02-3440-2772

클라리프스 더블 세럼 1965년에 처음 출시해 현재 8세대 버전으로 선보이는 더블 세럼. 오일 성분과 워터 성분이 2개의 용기로 분리되어 있다가 평평 시 피부 유수분 밸런스와 동일한 황금 비율로 섞여 나와 최적인 피부 밸런스를 맞춰준다. 7세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더욱 가벼워진 텍스처와 사용 목적에 따라 평평 시 작은 양, 많은 양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새로운 보틀로 업그레이드했다. 성분 역시 강화했는데, 기존의 20가지 식물 성분에 인티에이징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강화형 참깨 피피부에 나타내는 모든 노화의 징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30ml 11만원. 문의 080-543-9052

설화수 윤조예센스 단일 제품 판매 누적 매출액 1조원을 달성했다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국내는 물론 해외 고대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설화수의 대표 예센스. 1997년에 세간 후 가장 첫 단계에 비하면 세계 최초의 항방 부스틴 예센스로 선보이며 여성들의 뷰티 루틴을 바꾼 이 제품은 20년 넘게 줄곧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윤조예센스의 핵심 원료인 자란, 지황, 연, 옥죽, 백합으로 이루어진 자란단*이 피부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어 영양, 생기, 투명도, 탄력, 자생력 등 총체적인 피부의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 기존 뷰티 루틴에 이 제품 하나만 추가해도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듯. 60ml 99만원. 문의 080-023-5454

랑콤 제-피피오 더블 드림 앰플 출시 당시 이 예센스를 사용하지 않는 뷰티 에디터가 없었을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피피오 예센스의 차세대 버전인 제-피피오 더블 드림 앰플. 프라보이오닉스 성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한 제-피피오 프라보이오닉스 예센스와 순도 98%의 항산화 열물을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선사한다. 제품 개봉과 동시에 고순도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화되어 30일간의 사용을 권장하는 프라보이오닉스 콘센트의 인티에이징 앰플로, 피부 간에 유익한 유산균을 풍부하게 함유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노화의 징후를 예방 개선한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의 기초 체력을 높여 피부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효과 또한 획득할 수 있다. 20ml 11만원대. 문의 080-001-9500

클레오보 보메 크림 프로텍티브 UV SPF 50+/PA+++ 자외선 차단제 키티고리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지만, 사용해보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텍스처, 발림성, 효과, 향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스킵케어에 가까운 프라보이오닉스 차단제. 메이크업 이스트와 스킵이 이 사랑하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인식되어 나면서 미니애폴을 형성한 베스트셀러다. 자외선을 포함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개발한, 생크림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와 피부 문양 효과가 더해진 용량이다. 트로피컬 향과 효과, 안티폴루션 기능, 진피 절기세포 손상 억제 효과 등 더욱 강력해진 스킵케어 성분과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 50ml 15만 원대. 문의 02-3438-6032 에디터 **권유진**

editor's Pick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추천하는 코스메틱 제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안쪽 유틸러 (시계 방향으로) **조르조 아르마니 스프링 기든 컬렉션 엑스터시 사인 #302** 봄날의 꽃잎을 닮아 '봄날코랄'이라는 애칭을 얻은, 화사하면서 로맨틱한 코랄 컬러의 립스틱, 립밤만큼 촉촉한 보습력과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사랑하는 엑스터시 사인 라인과 어울리는 스프링 기든 라이드 에디션이다. 인생을 화려하게 하는 생기가 있는 코랄 컬러가 꽃잎이 입술에 물들듯 은은하게 발라주어 아름다워주고 청순한 느낌을 연출한다. 3g 4인분량.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권유진*

데코레테 아이 글로우 켈 화제의 드라마 <인스타>에서 감성주의 변신은 눈매를 완성한 주역은 바로 이 색이다. 유명 뷰티 유틸러들 사이에서 바셀린 크림을 연출해주는 아이 템으로 유명한 인품,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성과 함께 고급스럽게 발색되는 글로 윌이 참으로 예쁘다. 특히 피부결의 화사한 베이지 컬러인 BE386은 베이스 색으로도 훌륭하고, 먼 얼굴에 이 컬러 하나만 살짝 발라주어도 자연스러워진다. 깊은 눈매를 완성할 수 있다. 6g 3인분량.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권유진*

나스 피아넬 첫 컬렉션 블러쉬 뉴 에이프루드 나스의 2018년 첫 번째 컬렉션은 바로 여성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핑크 컬러를 나스만의 감각으로 해석한 피아넬 첫 컬렉션. 2014년에 라피에트 에디션으로 출시해 품질 대란을 일으키며 재탄생 요청을 받은 컬렉션으로, 올해 아시아 익스플루시브로 다시 선보이려는 정세우씨가 크다. 이중 밝은 채도 핑크 컬러의 뉴 에이프루드는 사선과 수직선으로 구성된 핑크 컬러를 보여준다. 4.8g 4인분.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권유진*

아두선 더 블러시 024 로즈바 달린 장미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톤다운한 생강빛 블러시. 팔감이 없는 피우더 타입 제품이라, 살짝 물든 듯 상쾌한 질감을 두터운 감이 연출되는 것이 특징. 양 볼과 눈두덩에는 물론 광택과 색이 입술에 바로 글세 분유가 있고 저렴한 메이크업이 완성되어 한 층 더 밝고 있을 만한 유용한 컬러다. 2.5g 3인분량.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권유진*

프래쉬 로즈 유스 프래쉬 레스큐 마스크 다양한 소재의 워시 오프 타입 마스크 제품을 선보인 프래쉬의 신제품 마스크. 5분 페이스 마스크라는 콘셉트를 안장 수출물을 함유해 디톡스 효과를 낸다. 향과 텍스처 모두 만족스럽다. 100ml 9인분량.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배미진*

이솝 데오도란트 롤-온 지난 시즌 스프레이 형태에 이어 이번엔 풀온 타입의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됐다. 향하는 부위에 직접 바를 수 있어 더욱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솝 특유의 우드향 아로마 향을 좋아해서 올해도 여름 내내 잘 사용할 것 같다. 50ml 4인분량. 문의 1800-1987. *by 에디터 이지현*

랑콤 UV 엑스퍼트 톤업 자외선 차단제 실용적인 요소를 고루 갖춘 랑콤에서 선보이는 자외선 차단제. 전성적인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 마른 피코먼트와 미세 결 피우더로 분얼까지 책임진다. 데일리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ml 6인분량 제품은 물론 50ml 8인분량 제품도 선보인다.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배미진*

라피에르 벨라피어 아이 크림 물주름을 레이저 아이 크림 라인으로 목본적인 마-이층을 회복한 라피에르. 그중 물주름을 레이저 라인으로 라피에르 코즈메틱을 경험해볼 수 있는 것은 여들에게 꼭 추천해볼고 싶은 제품이다. 라피에르 피우더와 브렌드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라피에르 텍스처가 놀라운 만족감을 선사한다. 20ml 54인분량.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배미진*

오엘 인베트 오일 몇 통을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셀룰라이트 완화와 붓기 제거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향과 보습 효과, 텍스처 등 모든 면에서 만족을 주고 싶은 제품이다. 토스카나 지역의 자연에서 얻은 최상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격도 합리적이다. 거드공이, 무릎 뒷부분 등 림프절 중심으로 사용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0ml 11인분량. 문의 02-517-5513. *by 에디터 배미진*

슈베르 레탈 스킨쿠션 피오네이션 사쿠라 생분을 포함한 플라워 추출물을 더해 화사하고 생기가 있는 피부 톤을 연출하는, 꽃잎 패턴을 입힌 피우더 쿠션 팩트. 환한 피부 톤과 장미와 오공을 카멜레온 피부에 마치 수분 방울이 피부를 감싸는 듯한 뛰어난 보습력이다. 데일리 아주 부드럽고 탄력 있는 4겹의 쿠비 셀 패키지가 보습력과 밀착력을 높여준다. 13g 4인분량.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권유진*

셀라수 자외선방해 셀라수의 마스크 팩은 믿고 사용하는 편이다. 백상 생분을 골고루 갈아 넣은 이 팩은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할 수 있으며, 백상 다량 함유 수분을 유자 효능과 도와주어 촉촉한 피부로 거듭난다. 인-사워 워시 오프 마스크로, 사워 전 얼굴에 도포하면 사용하는 동안 각질 제거와 브라이트닝 효과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편리하다. 80ml 6인분량.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이지현*

볼리 1803 레 비자날 보디로션 욕실에 두는 것외로도 훌륭한 오브제이 되는 매력적인 보물에 담긴 보디로션. 물기 없는 레 비자날 보디로션 유 유 같은 라이드한 텍스처의 로션이 빠르게 흡수됨과 동시에 마치 수분 방울이 피부를 감싸는 듯한 뛰어난 보습력을 자랑한다. 제라늄 에센스, 아방 아가 향 등 그린 계열 향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길 수 있을 것. 200ml 7인분량. 문의 02-511-3439. *by 에디터 이지현*

라즈카이 파스트 씨큐어 비타민 C 세럼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창영의 코즈메틱 브랜드로, 피부 광채를 되찾아준다는 유명한 노랑 세럼을 직접 경험했다. 영국 DSM사의 순수 비타민 C가 무려 13% 함유된 수분 베이스의 고농축 비타민 C 세럼으로, 세안 후 촉촉함을 열어 얼굴에 골고루 퍼 발라주었더니 순순히 얼굴 전체에 자연스럽게 온 윤기가 돌았다. 그 위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촉촉한 물광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10ml 8인분량. 문의 02-3444-0209. *by 에디터 이지현*



SHOWROOM

FASHION



에르메스



에르메네제노 제나



토즈

브리오니 2018 F/W 컬렉션 브리오니는 개성이 각기 다른 남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콘셉트로,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이 느껴지는 2018 F/W 컬렉션을 공개했다. 늘씬한 실루엣과 풍부하고 감각적인 컬러가 룩을 한층 세련되게 만든다. 문의 02-3274-6483

0914 마그넷 클로저 백 0914는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마그넷 클로저 백을 출시했다. 마그넷 클로저의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해 가죽 코드와 마그네틱의 심플한 조화가 돋보이는 백으로,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문의 02-2066-0914



에르메스 상 당크르 펑크 주얼리 전시 에르메스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메종 에르메스 도스파크에서 상 당크르의 도발적인 변화를 담은 <상 당크르 펑크 주얼리> 전시를 개최한다. 해체와 복원을 콘셉트로 특별한 사노그래피를 잔잔하게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544-7722

에르메네제노 제나 티자노 스니커즈 에르메네제노는 미니멀한 스타일의 티자노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하프탑과 로퍼, 2가지 스타일로 출시했다. 문의 02-518-0285

토즈 소프트 셸라 백 토즈는 소프트한 레더를 사용해 부드러운 실루엣이 돋보이는 '소프트 셸라 백'을 소개한다. 최고급 소재, 곡선 형태의 아우터와 스타일을 활용해 견고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 문의 02-3438-6008

살바토레 파라카모 2018 뉴 아이웨어 살바토레 파라카모는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아이웨어를 공개했다. 클래식한 사카 프레임에 미니멀한 간지니 디테일을 더해, 2가지 사이즈와 8가지 컬러로 제작했다. 문의 02-3016-8117

데렉 램 10 크로스비 향수 컬렉션 데렉 램 10 크로스비는 뉴욕의 크로스비 스트리트에서 생겨난 10개의 스토리를 담은 신제품 데렉 램 10 크로스비 향수 컬렉션을 론칭한다. 심플한 보틀 속 프라세하고 플로랄한 향부터 오렌지향 향기까지 10가지의 독특한 향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2-3443-1805

실론 블루 실론은 블루 라이트 전용 디바이스인 '실론 블루'를 선보인다. 이는 24개의 블루 라이트와 프라세컬 열에너지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피부 트러블 해결에 도움을 준다. 세안 후 맨 얼굴에 사용 가능하며 2~3분 정도 트러블 부위나 피지 과잉 부위에 마사지하듯 블루 라이트와 열에너지를 쬐어주면 집에서 손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 문의 080-246-1234



데렉 램

랑콤 2018 스프링 컬렉션 랑콤은 프랑스 파티시에의 세계를 주제로 한 '2018 스프링 컬렉션을 전개한다. 그레닌 사탕처럼 달콤한 '젤리 립', 귀여운 컬러의 '이이 슈가 팔레트'와 프렌치를 상징하는 '마카롱'까지, 아자자하고 귀여운 케이크와 맥화적인 컬러로 오감을 만족시킨다. 문의 080-001-9500

샤넬 D-폴루션 에쌍씨엘 샤넬은 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토탈 안티폴루션 제품 'D-폴루션 에쌍씨엘'을 선보인다. 3D 안티폴루션 효과를 갖춰 준 데일리 프로텍션 미스트로, 파부를 도시의 공해와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고 자가 방어 능력을 길러준다. 후다하며 수시로 뿌려주면 피부의 수분 장벽 강화시켜준다. 문의 080-332-2700



샤넬



반클리프 아펠 리크 드 노아 컬렉션 전시 반클리프 아펠은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DDP에서 리크 드 노아 컬렉션 전시를 개최한다.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경이로움, 메종의 독창성과 장인 정신이 담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문의 00798-852-16123

닝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메탈, 레더, 러버 등 3가지 소재로 교체 가능한 스트랩을 더해 더욱 업그레이드했다. 문의 02-3446-0088



반클리프 아펠, 타사키, 바세론 콘스탄틴

타사키 피아노 링 타사키는 우아한 핑크 컬러의 18K SAKURAGOLD™ 소재로 제작한 피아노 링을 제안한다. 피아노의 선율을 모티브로 한 피아노 라인 은 디자인이 모던하면서도 심플해 연인을 위한 커뮤 링으로 제작이다. 문의 02-3461-5558

바세론 콘스탄틴 오버시즈 듀얼 타임 바세론 콘스탄틴은 기술력과 실용성을 겸비한 새로운 모델 '오버시즈 듀얼 타임'을 출시했다. 여행자를 위한 오버시즈 컬렉션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



반클리프 아펠

JEWEL&WATCH

L'ARCHE DE NOÉ
RACONTÉE PAR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아펠이 들려주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CONCEPTION + DESIGN
ROBERT WILSON



2018년 3월 31일 - 4월 29일
11am to 7pm (매주 화요일 휴관)

DDP

온라인 사전 예약
kr-vcaarchedenoe.com